metro
메트로 2013년 11월 6일 수요일 제2448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2
추신수 '애개, 150억 골?'

美국빈 박 대통령, 엘리자베스 여왕 부부와 마차 퍼레이드 영국을 국빈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후 버킹엄궁 인근 근위기병대 연병장인 호스 가드 광장에서 공식환영식을 마친 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남편 에든버러공작과 함께 마차를 타고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관광 황금알' 낳게 해주오

병원·지자체·호텔·쇼핑업계 등 신성장 분야 인식 '투자 붐'… 재계 "정부 적극 지원을"

1000만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찾는 시대다. 관광, 비즈니스 등 다양한 이유로 한국을 찾지만 현재 의료관광만큼 뜨거운 스토리는 없다. 병원은 물론 지자체, 특급호텔 등도 의료관광을 새로운 파라다이스로 바라보고 있다.

◆ 대세는 휴양형 의료관광

지자체들은 치료, 수술, 관광을 모두 아우르는 의료관광에 휴양을 더해 외국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먼저 제주도는 의료관광 복합시설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제주한라병원이 오는 12월 문을 여는 의료관광 호텔인 'WE호텔'은 100실 규모의 호텔 객실과 30병상 규모의 병실은 물론 물과 요가, 산책 등을 이용한 치료시설인 수치료센터와 미용성형센터, 건강검진센터, 재활의학센터 등을 완비했다.

'커피 힐링캠프'와 '게으른 템플스테이' 등 치유형 의료관광 상품으로 잘 알려진 강원 강릉시는 의료관광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의 돌파구를 찾고 있다. 특히 '힐링 코리아 강릉 이라는 상품으로 동해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항로를 이용해 건강과 휴양을 특화했다.

이와 함께 대전시와 강원도 등은 지난달 휴양형 의료관광 국제컨퍼런스 등을 열고 내륙권 휴양형 의료관광 코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경북 안동시는 우수 고택 30곳과 업무 협약을 통해 차별화된 의료관광을 선보였다.

◆ 병원과 호텔에는 새로운 기회

의료관광은 국내 병원과 호텔에도 새로운 기회로 작용한다.

우선 성형외과, 치과 등 뷰티 중심에서 이제는 종합병원들이 의료관광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상황이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최근 치료와 힐링이 접합된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했으며 인하대병원은 5000억원 규모의 비용을 들여 인천 송도에 메디컬 콤플렉스를 건립 중이다. 또 다른 종합병원들 역시 특화된 전략을 구상하며 의료관광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관광산업의 한 축을 담당해온 호텔 역시 앞다퉈 의료관광을 위한 다양한 시안을 펼치고 있다. 밀레니엄 서울힐튼은 세브란스병원 체크업센터와 최근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의료관광 마케팅을 시작했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와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는 급증하는 중국인 의료관광객들을 위해 의료관광 서비스를 확대했으며 롯데호텔은 7곳의 병원과 상호 협력해 의료관광을 온 외국인을 불러모으고 있다.

이외에도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JW메리어트 서울 호텔,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등의 특급호텔들도 의료관광에 손대기 시작했다.

◆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경쟁력 확충해야

의료관광은 이처럼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기회이자 발판이다. 특히 의료관광 산업은 쇼핑, 식음료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효과를 통해 높은 부가가치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하지만 현재 그 경쟁력은 매우 취약하다. 2012년 국내 의료관광객 유치 실적은 15만 명으로 세계 의료관광객 5370만 명의 0.3%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각계각층에서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일 국내 의료 산업의 경쟁력 확충과 취약한 국내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12대 정책과제'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해 실시 여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오토바이·스쿠터도 배출가스 정기검사

오토바이나 스쿠터 등 이륜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검사제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5일 환경부는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륜자동차는 앞으로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등의 배출가스가 허용 기준에 맞는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260cc를 초과하는 대형은 내년, 100~260cc 중형은 2015년, 50~100cc 소형은 2016년 등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경형(50cc 미만) 이륜자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기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 기간이 지나 검사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온실가스를 줄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제도'도 시행된다.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된 승용자와 승합자 중 10인승 이하이거나 총 중량 3.5t 미만인 자동차가 적용 대상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돼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현정기자 jhj@

인생은 [門]이다

기자 수첩
장윤희
<경제산업부 기자>

"울지 마 언니. 4년 뒤에는 더 울면서 시험 보러 다녀."

최근 한 취업 커뮤니티에 올라온 댓글이 큰 화제를 모았다. 어느 고3 수험생이 다가오는 수능 중압감 때문에 독서실에서 울었다는 이야기에 한 네티즌이 재치 있는 답변을 한 것이다. 울 필요 없다. 대학 졸업하는 4년 뒤에는 더 울면서 취업시험 보러 다닌다는 댓글에 많은 네티즌이 공감 버튼을 눌렀다.

수능이 바로 앞으로 다가왔다. 수많은 수험생들은 '대학만 가면 고생 끝'이란 마음에 최선을 다한다. 일선 학교 교사와 학부모들도 대학 합격이 모든 인생의 해결책인 것처럼 아이들에게 강조한다.

하지만 대학 다녀본 사람은 안다. 대학 입학 후 더 큰 숙제가 쌓여있다는 점을 말이다. 좋은 대학 나와도 취업하기 힘들다는 불편한 진실도 저절로 깨닫게 된다.

요즘 취업 커뮤니티 게시판은 기업 공채 전형 후기와 청소년 시절에 대한 향수가 반반씩 섞여있다. 일부 취업 준비생은 "대학생만 되면 모든 고민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 취업, 결혼, 노후 대비 등 끝이 안 보인다"고 털어놓는다.

최근 방한한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은 "미래 예측이 중요하지만 나도 잘 모른다"면서 "확실한 것은 단기적 계획은 변수가 많으나 장기적 목표를 향해 달려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뻔한 이야기지만 수능, 대입, 취업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자. 모두 인생의 최종 비전을 향해 거쳐가는 관문일 뿐 아니까.

통진당 '해산심판' 받는다

국무회의 '헌정사상 첫 사례' 의결·박 대통령 재가…2년 만에 존폐 기로

원내 제3당인 통합진보당(통진당)이 창당 2년 만에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

정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또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 결정도 청구키로 했으며 각종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 절차도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통진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핵심 세력인 RO(혁명조직)의 내란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번 청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정당에 대한 해산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다만 이승만 정부 시절 진보당이 행정청 직권으로 강제 해산된 적은 있다.

서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통진당 해산 청구안을 전자결재로 바로 재가했고, 법무부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앞으로 헌재는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를 심리하게 된다. 정당의 강령이나 정책, 당수와 당 간부의 연설 내용, 출판물, 정당 명의의 활동 등을 두루 검토해 180일 이내에 최종 선고를 내려야 한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해산 결정이 내려진다. 최종 선고 이전이라도 직권 또는 정부의 신청에 의해 통진당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와 관련, 통진당은 "민주주의 가치를 짓밟는 행태"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앞장서서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 농락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김민준기자 mkim@metroseoul.co.kr

법무부 앞 '말문 막힌' 통진당 5일 법무부가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 통합진보당이 항의 기자회견을 하려 하자 경찰이 제지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오늘 검찰 출석… '대화록 폐기 의혹' 조사

●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6일 오후 2시 검찰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 문 의원 측에 "가급적 이른 시일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며 출석 요구를 통보했고, 문 의원은 "의연하고 당당하게 응하겠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근민 제주지사 무소속 딱지 떼고 새누리 입당

● 광역단체장 가운데 유일한 무소속인 우근민 제주지사가 5일 새누리당에 입당을 신청했다.

우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도민의 선택을 받았고 정치적인 뜻을 함께했던 분들에 대한 고민도 많았다"며 "하지만 현재 제주도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한 지역 현안 사업에 주력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 새누리당에 입당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7급 회계 공무원도 재산등록 의무화

원자력 공기업 2급 등 포함
업무관련 업체 재취업 제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회계부서의 7급 이상 공무원과 원자력 발전 분야 공기업의 2급 이상 임직원은 내년 하반기부터 재산 등록이 의무화된다. 이들은 또 퇴직 후 업무 관련성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의 재취업이 제한된다.

안전행정부는 5일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자를 대거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부서에서 수입과 지출을 직접 처리하는 7급 이상 공무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 수사 부서 7급 이상 공무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력기술,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PS 원전 분야의 2급 이상 임직원도 의무적으로 재산 등록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회계부서 4급 이상과 식품 위생 지도·단속 분야 7급 이상 공무원만 재산 등록을 해왔다.

이로써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자는 2만2400명가량 늘어 지난해 19만1114명과 비교해 11.7% 많아졌다. 이와 함께 주식백지신탁업무 심사자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민준기자 mkim@

서울여대 온 피터 브래들리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전혜정)가 지난 4일 노원구 바롬인성교육관에서 영국의아동보호단체인 '키드스케이프(Kidscape)'의 피터 브래들리 부회장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6일 국제인터넷윤리심포지엄에 참석하는 브래들리 부회장이 한국의 대학생들과 사이버 폭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세대 60주년 마라톤 개최

한세대학교(총장 김성혜)가 개교 60주년을 맞아 지난 4일 '총장배 마라톤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마라톤대회는 제60대 유니크 총학생회와 학생처에서 교내 학우들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학교 문화를 정착하고자 기획됐다.

한세대 학생과 교직원 350여 명이 참가해 총 8.6㎞ 구간을 달렸다.

英 총장단' 이화여대 방문

영국의 명문대 총장단이 이화여대를 방문해 교육과 연구 협력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김선욱 이화여대 총장은 4일 본관에서 존 휴즈 뱅거대 총장, 피트 다운즈 던디대 총장 등 영국 6개 대학 총장단과 회견을 갖고 공동 연구 하계대학 협력, 교환학생 교류 등 각종 교류 협력에 대해 협의했다.

개성공단 '중단 후유증' 속출

2곳 사업포기·공장 매각

개성공단이 재가동된 이후에도 경영난에 시달린 일부 입주기업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공장을 매각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이 재가동된 지난 9월 16일 이후 섬유업종 1곳, 전기·전자업종 1곳 등 2개사가 공단 내 법인 자산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다른 1개 기업도 매각 계약이 거의 성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북 신규 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에 따라 개성공단 내 다른 기업에 회사를 매각하기로 했으며 아직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통일부에 매각과 관련된 정식 절차는 밟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기업은 원청기업의 주문량이 가동 중단 사태 이전 수준으로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 입주기업 관계자는 "앞으로 몇 달 정도 단기간에는 주문량이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감돈다"며 "이미 계약을 체결한 곳 외에도 10여 개사가 공장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민준기자 mkim@

내일 수능 – '합격풍선 제발 실력 발휘' 2014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5일 오후 경기 수원 효원고에서 고3 수험생들이 수능 고득점을 기원하는 글귀를 적은 풍선을 하늘에 띄우고 있다. /뉴시스

'한국 뒷조사한 美'에 외교부 우려 표명

정부는 뉴욕타임스(NYT)가 최근 보도한 미국 국가안보국(NSA) 문건에 한국이 미국의 주요 정보 수집 대상 국가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해 미국 측에 우려를 표명하고 상세 내용을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5일 "관련 보도가 나온 직후 미국 정부에 이 문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 및 조치를 신속하게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현재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미국의 각종 도청 의혹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정부가 우선 취할 조치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라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서 그에 맞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NYT는 외교 정책, 정보기관 활동 등의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미국의 이익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초점 지역'으로 분류하고 미국 공관 등에 특별정보수집부를 설치해 운영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미국 시긴트(SIGINT) 시스템 2007년 1월 전략 임무 리스트' 제목의 NSA 문건을 보도했다. /유선준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성필

링컨, 미국 16대 대통령 당선
1860년 11월 6일 미국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대통령후보 에이브러햄 링컨이 당선됐다. 그는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정규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지만 풍부한 독서를 통해 지식을 쌓았고 연속된 실패에도 굴하지 않는 의지의 정치인으로 유명했다.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남부 주들이 노예제도 폐지론에 반발해 연방을 탈퇴 남부연합 정부를 구성했고 결국 남북전쟁이 발발했다. 이 전쟁에서 링컨은 "노예해방을 선언했고 승리를 이끌어냈으나 재선 후 연극을 보던 중 총격을 당해 사망했다.

무르익는 '6자회담 무드'

Issue & View
6자 북핵 논의 급물살

김하연기자

중국 우다웨이 '키맨' 역할 미국 방문 결과 들고 방북 오늘 한·미·일 대표회동 등 당사국들 재개 움직임 활발

북핵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6자회담 재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4일 북한을 전격 방문한 데 이어 6일엔 한·미·일 3국이 6자회담 수석대표가 머리를 맞댄다.

앞서 지난 2일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의지를 밝힌 데다 오는 12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한해 북핵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해지는 등 긴박하게 돌아가는 형국이다.

일각에선 6자회담 당사국 간에 북핵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모종의 빅딜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게 아니냐는 추측마저 낳고 있다.

4일 북한을 방문한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

우 대표의 방북 목적과 일정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가 지난달 28일 미국을 방문해 조율한 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북측과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소외될 것을 우려, 우리 측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미국과 중국 주도로 진행 중인 북핵 문제에 대해 끌려가지 않고 주도권을 쥐고 '한국식 로드맵'을 바탕으로 해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방미 중인 우리 측 수석대표인 조태용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주인 의식을 갖고 북핵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맥을 같이한다.

한·미·일 3국의 공조체제 역시 강화되고 있다. 3국 수석대표들은 6일 회담을 열고 북핵 문제 해결과 6자회담 재개 조건 등을 집중 논의한다.

우 대표의 전격 방북과 푸틴의 방한, 한·미·일 3국의 공조 등 당사국 실무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6자회담 재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러나 관련 당사국들의 입장 차가 커 회담 재개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김해공항 죽이는 'KTX-인천공항'

연말부터 경부선~국제선 터미널 원스톱 연결
환승 없는 편리함에 지역 항공수요 잠식 우려

올 연말 KTX 경부선이 인천공항까지 연결됨에 따라 김해공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항공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오는 12월 28일부터 KTX가 서울역을 지나 인천공항까지 바로 연결될 예정이다. 소요 시간은 3시간 30분 정도다.

부산에서 KTX를 탄 승객이 서울역에서 공항철도 등으로 갈아타야 했던 기존 방식에 비해 인천공항까지 환승 없이 곧장 갈 수 있는 셈이다.

항공업계에서는 이 환승 없는 편리함 때문에 김해공항의 항공 수요를 상당 부분 잠식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부산을 근거지로 하는 저비용 항공사 에어부산 관계자는 "짐이 많은 승객이 서울역에서 환승할 필요 없이 인천공항으로 바로 갈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라며 "부산발 해외 노선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부산뿐만 아니라 기존 김해공항을 이용했던 대구나 경북지역 승객은 소요 시간이 2시간대로 예상되는 만큼 인천공항행 KTX 이용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 인천공항에서 유럽이나 미주 노선이 주로 낮 시간에, 중동지역 항공기가 밤 운항이 많은 만큼 오전에 KTX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국제선 승객에게 장점이 있다.

지난해부터 운항되고 있는 국내선 환승 전용 내항기는 출발지 공항에서 1번의 수속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 때문에 이번 KTX 인천공항 연결 역시 환승 전용 내항기와 마찬가지로 인천공항으로의 쏠림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항공업계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김해공항에 취항한 한 외국 항공사 관계자는 "기술의 발달로 KTX로 인천공항까지의 소요 시간은 갈수록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인천공항이 중장거리 노선 승객을 흡수하면 김해공항은 저비용 항공사 위주의 단거리 노선 위주로 재편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공사비 4조원이 들어가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 확장과 맞물려 KTX의 인천공항 연결이 결국 장기적으로 김해공항의 항공 수요를 잠식한다는 점에서 동남권 신공항 논의에도 누증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정보대~부산마케팅고 선취업 후진학 연계 MOU

경남정보대학교(총장 황일주)는 최근 센텀산학캠퍼스에서 부산마케팅고등학교(교장 김○○) 드림어션 관리다이애교 이원희와 함께 선취업후진학 연계 교육 MOU체결식을 가졌다.

항운노조원 1000명 구조조정 항의 집회

부산항운노조가 부산항 북항 컨테이너터미널들이 강행하고 있는 인력 구조조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부산항운노조는 5일 오전 부산항만공사 앞에서 조합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항 정상화를 위한 항만근로자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항운노조는 노조원들의 생존권 보장과 하역료 덤핑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부산항 북항 컨테이너터미널들의 경영 악화 때문에 하역 노동자들만 구조조정 위기에 내몰렸다고 항운노조 측은 주장했다.

부산항운노조 측은 "신선대부두 운영사인 CJ대한통운 부산컨테이너터미널은 대기업을 모기업으로 두고 있으면서도 자금 지원 없이 항만 당국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고 근로자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희망퇴직으로 20%가 넘는 인원을 줄일 수 있는데도 추가로 정리해고를 통보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제3기 시민의회교실 수료

부산시의회는 5일 오전 10시 제3기 시민의회교실 수료식을 열었다.

수료식에서 김석조 시의회 의장은 학습, 방청, 견학, 발제 및 토론 전 과정을 이수한 시민 56명에게 수료장을 수여했다.

부산시의회 시민의회교실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이해를 돕고 민주 시민으로서 자질을 함양한다는 취지로 열리고 있다.

수영구청 '대입 전략설명회'

수영구(구청장 박현욱)는 오는 11일 오후 6시부터 구청 2층 구민홀에서 '2014 대학입시 합격 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유명 입시전문강사를 초빙해 올해 수능 가채점 결과 분석 및 대입 합격 전략을 내용으로 진행된다. 또 강의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접수는 전화,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선착순 현장 접수, 인터넷 접수 등으로 가능하다. 문의: 051)610-4127

소말리아 해역에서 187일간 우리나라 선박 등의 보호 임무를 수행하고 5일 오전 해군 부산작전기지로 귀항한 청해부대 13진 왕건함 김병이 마중 나온 아이에게 입을 맞추며 기뻐하고 있다. /해군작전사령부 제공

'해적퇴치' 왕건함 187일 만에 귀항

소말리아 해역서 선박 800여척 호송·항해 지원

소말리아 해역에서 187일간 우리나라 선박 등의 보호 임무를 수행한 해군 청해부대 13진인 왕건함이 5일 오전 부산작전기지로 귀항했다.

아덴만 해역에서 보호 임무까지 맡아 지난 5월 3일 파병된 왕건함은 27차례 국내외 선박 63척을 호송하고 718척의 항해를 지원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아덴만 해역에서 표류하는 400t급 가축운반선 '알사예드 2호'를 발견하고 외국인 선원 11명을 구조, 예멘 해경에 안전하게 인계하는 등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을 왕성하게 했다.

또 미국, 프랑스와 연합해상기동군수, 싱가포르 방산전시회 등에 참가하는 등 다양한 해상 군사외교를 펼쳤다.

이날 왕건함 귀국 환영식에는 정호섭 해군작전사령관 등 해군 장병과 가족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정호섭 사령관은 "청해부대 13진의 성과는 장병이 혼연일체가 돼 자신이 바로 대한민국과 해군의 대표라는 자부심으로 온 힘을 다한 결과"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실업급여 1억3000만원 부정 수급한 60명 입건

경남 진주경찰서는 5일 취업해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인 여모(45)씨를 포함해 6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여씨는 지난 2011년 9월 다니던 사업장이 부도나며 일을 그만둔 뒤 곧바로 재취업했음에도 노동청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 200만여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2010년부터 최근까지 1인당 100만~800만원씩 모두 1억3000만여 원의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씨 등이 취업한 사업장의 확인 없이도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점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타낸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고용보험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금정 가족문화 한마당' 개최

금정구건강가정지원센터는 오는 29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스포원파크 꿈나래 어린이극장에서 '2013 금정가족문화한마당'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금정가족문화한마당은 연 1회 다양한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로 마련된다.

식전 행사로 동화 구연과 더불어 금정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초등학생 오카리나 봉사단의 오카리나 연주 공연을 시작으로 어른 아이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마술쇼, 변검쇼, 버블쇼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신청은 11월 29일까지다.

문의: 051)513-2131

경성대 김민지 '스트라스부르 쾌거'

5회 맞은 한국영화제서 단편 '고등어…' 최고상

경성대학교는 이 대학 연극영화학과 졸업생 김민지(27·사진)씨가 지난 10월 프랑스에서 열린 '제5회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한국영화제' 단편경쟁 부문에서 '고등어 따라 갑니다'라는 작품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스트라스부르 한국영화제'는 유럽연합의 문화수도라 일컬어지는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 도시에서 매년 열리는 영화제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 한국 영화를 알리는 중요한 영화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비경쟁 부문 장편영화 섹션에 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이자 부산을 대표하는 작가감독인 전수일 감독의 영화 '핑크'와 '개와 늑대 사이의 시간' 2편, 강제규 감독의 '태극기 휘날리며'와 '마이웨이' 2편 등 10여 편의 한국 영화가 상영됐다.

한편 김민지 감독은 작품 '고등어 따라 갑니다'로 지난해 한중대학생영화제에서 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정하균기자

지난달 25일 개막해 이달 3일까지 열린 경남 창원 가고파 국화축제에 154만 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마산항 제1부두에 마련된 축제 주 행사장 모습. /연합뉴스

가고파 국화축제 '대박'

단일 품종 전국 최대 꽃축제 154만명 입장 '523억 효과'

경남 창원시는 '가고파 국화축제'에 15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았다고 5일 밝혔다.

가고파국화축제는 단일 품종 꽃 축제로는 전국 최대 규모다. 축제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3일까지 10일간 마산항 제1부두에서 열렸다. 창원시는 축제장을 무료로 개방했다.

축제 전날 전야제를 포함해 주말에는 20만 명 이상, 평일에는 9만~10만 명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아 관람객은 154만 명을 넘었다. 지난해 152만 명보다 2만 명이 늘었다.

154만 명이 1인당 3만4000원가량을 음식비, 쇼핑 비용으로 썼다고 가정해 523억원의 경제 파급 효과가 있었다고 시는 덧붙였다. 창원시는 축제 기간 방문객 400명을 대상으로 평균 지출 금액을 조사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올해 축제에는 국화 한 줄기에서 1420송이의 꽃을 피운 다륜대작, 국화꽃으로 만든 5m가 넘는 두 마리 호랑이를 형상화한 작품 '쌍호' 등 다양한 국화 작품이 눈길을 끌었다.

마산어시장 상인회, 어시장사업협동조합, 창동통합상가상인회 등 축제장과 가까운 시장·상가들은 국화축제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음식값이나 상품값을 10% 깎아주는 할인 행사를 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부산대 통합기계관 재건축 '첫삽'

지상 11층 2만여㎡ 규모 오늘 오전 11시 기공식

부산대학교는 6일 오전 11시 부산캠퍼스 공사 현장 부지에서 통합기계관 재건축 공사 기공식을 갖는다.

부산대 통합기계관은 노후한 제1공학관과 제4공학관을 철거하고 총 사업비 365억원을 투자해 동일 부지 내에 재건축하는 것으로, 지상 11층 연면적 2만2978㎡ 규모의 부산캠퍼스 내 최대 교육연구시설로 건립된다.

이곳에는 기계공학부 실험실과 교수연구실, 대·소강의실과 국제회의장, 대강당(306석) 및 도서실, 통합장비실, 연구·개발(R&D)사업단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통합기계관 건립으로 폭넓은 공학 교육과 다양한 실험실습을 병행할 수 있는 최상의 교육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우수 인재 배출을 통한 지역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건립되는 통합기계관은 (주)부산건축에서 작년 11월 설계를 완료해 2017년 완공할 예정이다. /정하균기자

온 종합병원·서울성모병원 협력병원 협약식 부산 온 종합병원(병원장 정근)과 서울성모병원(병원장 승기배)은 지난 1일 오전 온 종합병원 9층 대회의실에서 양측 병원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주민의 의료 서비스 향상과 의료의 질적 제고를 위한 협력병원 협약식을 가졌다.

어린이대공원 공영주차장 임시 폐쇄

동물원 개장 앞두고 내년 2월까지 증축공사

부산시는 어린이대공원 내 동물원 개장을 앞두고 올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주차장 증축 공사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임시 운영 중단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내년 4월 동물원 개장으로 대폭 늘어날 주차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307대를 주차할 수 있는 2층 규모의 철골조를 철거하고 80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4층 규모의 주차장을 새로 지을 계획이다.

주차장이 일시 운영 정지됨에 따라 부산시는 공사 기간 동안 어린이대공원 주변의 주차난과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썸트랙(대로변, 양방향(시립도서관~부산종합운동장))에 주말·공휴일 주차 허용(오전 8시~오후 6시) 구간을 운영한다.

특히 이 중 부산진구 관할 주차구역(76면)은 평일까지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어린이대공원 주변 학생문화회관 등 민영주차장에 주차하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정하균기자 hk@metroseoul.co.kr

부산건설기술교육원 개소

부산지역 건설기능인력을 양성할 건설기술교육원이 6일 문을 연다.

부산시는 북구 덕천동에 국고보조금 등 100억원을 투입한 부산건설기술교육원을 완공하고 내년부터 교육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부산건설기술교육원은 2006년 국토교통부의 권역별 건설기능인력 양성기관 확충 계획에 따라 부산 유치가 확정됐다.

시는 내년부터 건축 시공, 실내건축 시공, 건축환경 설비, 특수 용접 등 4개 과정의 교육을 연 2회 실시할 예정이다. 과정별 수강 인원은 25명이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또 교육생에게는 월 30만원가량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관련 자격증 취득과 취업 등을 알선한다.

market index <5일>

코스피	코스닥
2013.93	528.73
(-11.24)	(-4.91)

금리	환율
2.89	1061.00
(+0.02)	(-2.00)

뉴스 & 뉴스

"수도권 전셋값 상승 계속"

● 수도권 지역의 전세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그룹(RMG·Real estate Monitoring Group)은 '3분기 부동산 시장 동향' 보고서를 통해 "올 3분기 수도권 전세 시장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서울 강남권 및 경기 남부지역의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폰 보조금 규제 되레 불법 조장"

제조~판매 복잡한 단계 · 이해 얽혀 단통법 통과 '난관'

코스피 18일 만에 2020선 아래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에 코스피지수가 18거래일 만에 2020선 아래로 내려갔다. 5일 코스피지수는 11.24포인트(0.56%) 내린 2013.93에 거래를 마쳤다. /뉴시스

집중진단 휴대폰 유통망

<글 싣는 순서>
①보조금 제대로 받고 계십니까
②이동통신사들의 책임인가
③유통구조 어떻게 풀든가
④(르포)현장에서 말하는 실상은
⑤보조금 논란 대책은 없나

"정부의 27만원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오히려 기습적인 불법 편법 보조금을 조장하고 있다."

지난 1일 이동통신 판매인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규제 정책에 항의해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는 사실상 정부의 의중을 반영해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단말기 유통구조 제도 개선 법안'에 반대하는 뜻을 담고 있다.

▲왜곡된 단말기 유통구조

우리나라의 휴대전화 유통구조는 제조사와 통신사, 중간 유통점, 소매점 등 여러 번의 단계를 거치는 복잡한 구조로 돼 있다. 이런 단계를 거치며 중간에 물류비에 마진을 붙이는 상황인데 이런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불법적인 보조금은 막아도 휴대전화 가격은 내려갈 수 없다.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유통구조 개선 및 단말기 판매 루트 다변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난마처럼 얽힌 현재의 구조를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지난 7월 기준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4463곳, 판매점이 3만8527곳에 이르고 이를 근거로 직원을 포함한 종사자 수를 유추하면 12만6000명에 이르는 상황이다.

▲정치권서 유통망 구조개선 나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를 통해 '단말기 유통구조 제도 개선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우선 유통망과 이통사 임원에 대한 제재 및 관리·감독 강화다. 대리점·판매점·이통사 임원의 단말기 판매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 행위 등과 관련, 제조사도 조사해 제재하고 제조사 장려금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했다.

▲정부·이통사 vs 제조사·대리점 양 진영 간 힘겨루기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조사 측과 이동통신 판매업계 측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이미 삼성전자 등 제조사 측에서는 이 법안이 애플 등 해외 사업자와 비교해 국내 제조업체에 역차별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또 제조사는 소비자에 대한 차별적 보조금 지급과 무관하고, 제조사와 이통사 간 협정에 대한 조항이 공정거래법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중복규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통 사업자들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과도한 보조금 지급 및 소비자 차별 행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통사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 행위는 물론, 제조사의 높은 단말기 가격 유지 및 이에 기반한 과도한 장려금 지급 행위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당초 조해진 의원실에서 발의한 '단말기 유통구조 제도 개선법안'에 수정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윤재준기자 kcat@metroseoul.co.kr

'외환 실탄' 3432억달러 최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넉 달째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외환 보유액이 3432억3060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63억 달러 증가했다. 이는 종전 사상 최대치인 3369억2000만 달러를 한 달 만에 경신한 것이다. 특히 10월의 월 단위 증가폭은 2011년 10월(75억9000만 달러)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한은 관계자는 "외화자산 운용수익과 유로화 등 기타 통화 표시 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늘어 외환보유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외환 보유액 가운데는 유가증권 비중이 90.5%(3107억5000만 달러)로 가장 높았다. 예치금은 6.3%(216억6000만 달러)를 차지했다. 9월 말 기준 외화보유액 규모는 세계 7위 수준이다.

/김민지기자 mnj@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충학
편집국장	조현호
부산지사장 직대	김원훈
서울광고문의	(02)721-9851~2
부산광고문의	051)959-2190
독자센터	(02)721-6811

2005년 5월 11일 등록(가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000)

RIA DAY

11월 11일

치즈스틱 1+1

12월 12일을 기대하세요!

- 제휴카드, 롯데멤버스카드 할인 제외
- 홈서비스 및 일부점포 제외

VM웨어 첫 겔싱어 대표가 꼽는 IT 4대 키워드

소셜·모바일·빅데이터·클라우드

"향후 IT 4대 키워드는 소셜, 모바일, 빅데이터, 클라우드입니다."

다국적 가상화·클라우드 인프라 기업 VM웨어는 26개 세션의 'V포럼 2014'를 5일 개최하며 IT업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를 첫 방문한 VM웨어 팻 겔싱어(사진) 대표이사는 간담회에서 IT 산업의 4대 키워드로 소셜, 모바일, 빅데이터, 클라우드를 제시했다.

겔싱어 대표는 "4대 키워드를 통합하는 가상화 비즈니스가 IT 산업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출장, 외근, PC 소유 여부를 떠나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사무 공간을 제공하는 가상화 체계 구축이 기업의 새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SK텔레콤, LG유플러스, 현대중공업, 신한은행, 강남 세브란스 병원 등이 가상화 서비스 도입으로 물리적 근무 제약을 극복한 성공 사례로 소개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기기 호환과 보안 문제로 가상화 시스템이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겔싱어 대표는 "IT 강국인 한국의 가상화 기대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면서 "편의성뿐 아니라 서비스 질과 안전성에 대한 확신을 부여하면 가상화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윤희기자 unieus@

땅부자 50만명 개인 토지 절반 보유

땅부자 50만 명이 국내 개인 소유 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명 중 1명꼴로 개인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5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발표한 2012년 12월 말 토지소유현황 통계에 따르면, 개인 소유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은 153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6년 대비 165만 명 증가한 것으로, 총 인구(5095만 명)의 30.1%가 토지를 갖고 있는 것이다.

다만 개인 소유 토지의 절반 이상은 전체 토지 소유자 중 상위 50만 명이 차지했다. 2006년보다 1.5%포인트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땅부자 50만 명에게 전체의 55.2%가 집중됐다.

토지 소유자의 연령대는 50대가 27.8%로 가장 많았고, 60대(24.4%), 70대(18.7%) 순으로 파악됐다. 20세 미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0.3%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전국 개인 토지의 35.7%를 수도권 거주자가 소유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전체 토지 면적은 10만188㎢이며 민유지가 전체의 52.6%인 5만2690㎢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국·공유지가 32.2%인 3만2256㎢, 법인은 6.5%인 6560㎢, 비법인 등 기타는 8.7%인 8682㎢로 뒤를 이었다.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통계누리(stat.molit.go.kr), 온나라 부동산(onnara.go.kr), 통계청 나라통계(index.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박선옥기자

도보 3분 역세권 '퇴계원 힐스테이트'

현대건설은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퇴계원 힐스테이트'를 특별 분양 중이다.

지하 2층, 지상 12~22층, 21개 동, 전체 1076가구, 전용면적 ▲84㎡ 756가구 ▲99㎡ 320가구로 구성됐다. 전 가구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분양가 6억원 이하로 이뤄져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된다.

경춘선 퇴계원역이 도보 3분대의 역세권 단지로, 전철을 이용해 세 정거장이면 서울로 진입 가능하다. 특히 지난해 개통된 경춘선 급행열차를 통해서는 용산까지 30분대면 닿을 수 있다. 또 서울외곽순환도로 및 43번·47번 국도와도 인접, 강남권까지 30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어 사실상 서울 생활권에 속한다.

단지 앞 용암천변으로 조성된 1만2622㎡의 수변공원을 포함해 단지 내외 총 3만3000㎡ 규모의 녹지공간이 조성되며, 왕숙천이 가까워 쾌적한 주거 환경이 기대된다. 여기에 단지 내 도제원초등학교가 위치해 초등학생 자녀들이 차도를 통과할 필요 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다.

계약금은 전용면적 84㎡ 2000만원, 99㎡ 2500만원 정액제가, 중도금은 전액 무이자 융자가 제공된다. 현지 계약 고객에게는 고급 자전거를 증정하는 고객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입주는 2014년 4월 예정이며, 모델하우스는 경기 구리시 교문사거리에 마련돼 있다. 문의 (031)563-8888

/박선옥기자

연금저축펀드 다시보자

'절세+수익' 눈길… 꾸준히 자금 몰려들어

금융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감소하면서 직장인들이 얇은 지갑에서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절세 상품에 관심이 쏠린다. 당장 내년부터 연금저축보험 등이 소득공제 대상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 절세 효과를 내는 상품이 더 줄어든다.

남아있는 절세 상품 가운데 연금저축펀드가 단연 눈에 띈다. 연금저축펀드는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존의 세제 혜택이 그대로 유지됐다. 펀드 투자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펀드 환매 시점까지 세금을 연기해주는 과세 이연 혜택도 적용되며 납입 한도가 연 1800만원까지 늘었다.

또 지난 1월부터 계좌 중심의 운용 방식으로 바뀌면서 1계좌당 1개 펀드에만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이 여러 펀드 가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중간에 다른 펀드로 자유롭게 갈아탈 수도 있어 투자금을 적극적으로 굴리기 좋은 환경이 됐다.

실제로 연금저축펀드에는 꾸준히 펀드자금이 몰려들고 있다.

5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전체 168개의 연금저축펀드에 연초 이후 6007억원의 자금이 순유입됐다. 최근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40일 넘게 자금 이탈 행렬이 이어지는 속에서도 자금 유입을 유지하고 있다.

세금을 면제해주는 비과세 펀드 중에는 재형저축펀드가 대표적이다. 재형펀드를 최소 7년간만 유지하면 펀드 발생 수익에서 농특세 1.4%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에 대해 세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개별 재형펀드의 성과를 보면 '피델리티차이나컨슈머재형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과 '신한BNPP재형봉쥬르미국증권자투자신탁[H](주식)', '에셋플러스차이나리치투게더재형증권자투자신탁 1(주식)', '한화재형라이프사이클(Life Cycle) G2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등의 순서로 최근 6개월간 9~16%의 수익률을 올렸다.

기존 소득과 상관없이 사전에 정해진 세율만 적용받는 분리과세 펀드도 잘 활용하면 좋다. 올해부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도록 세제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분리과세 펀드로는 투자한 유전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를 배당받는 유전펀드와 선박을 만들어 임대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선박펀드 등이 있다.

선박펀드의 수익률이 양호한 편이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설정액 10억원 이상의 유전펀드 2개는 최근 6개월간 6~8%대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선박펀드 1개의 6개월 수익률은 8%를 소폭 웃돌았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스틸 소재 기계식 다이얼 'Df' 출시 니콘이미징코리아가 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풀프레임 DSLR 카메라 'Df'를 선보이고 있다. 신제품 'Df'는 스틸 소재의 기계식 다이얼을 채용해 직관적인 조작성을 구현했으며 니콘 플래그십 DSLR과 동등한 풀프레임 CMOS 이미지 센서와 화상처리엔진 EXPEED3를 탑재했다. /연합뉴스

아파트 분양 성패 가르는 '펫네임'

분양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요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펫네임(pet name)'이 인기를 끌고 있다.

아파트 브랜드 앞뒤로 펫네임을 추가할 경우 별다른 설명 없이도 단지의 장점을 알릴 수 있어 최근 1~2년 사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건설사들은 잘 지은 펫네임 하나가 분양 성공으로 연결되기도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롯데건설은 지난달 공급한 서울 중구 순화동 주상복합 단지명을 '시청역 롯데캐슬'과 '덕수궁 롯데캐슬'을 두고 막판까지 고심하다 '덕수궁 롯데캐슬'로 결정했다. 도심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여유와 희소가치를 강조하고자 '역'이 아닌 '궁'을 선택한 것이다.

덕분에 이 단지는 최근 서울 도심 분양으로는 이례적으로 평균 7대 1의 높은 청약률을 보였다. 분양 관계자는 "도심 속 휴양과 입지 등의 장점을 두루 알릴 수 있는 덕수궁이라는 펫네임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펫네임이 분양 마케팅에서 점차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이달 부산 사직동에서 분양되는 '사직롯데캐슬 더 클래식'은 펫네임을 '더 클래식(The classic)'으로 정했다. 부산의 전통 부촌으로 유명한 동래구의 부촌 속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최고의 아파트가 되겠다는 의미다.

포스코건설이 경기도 하남시 덕풍에서 시공하는 '하남더샵 센트럴뷰'는 하남의 중심임을 강조하는 '센트럴'과 검단산 및 한강 조망을 강조한 '뷰'를 합성해 펫네임을 지었다. 또 모아종합건설과 종합건설이 오는 22일 세종시에서 공급할 '모아미래도 리버시티'와 '중흥S-클래스 리버뷰'도 3생활권을 감싸고 있는 금강을 연상시키는 '리버'를 단지명으로 사용했다.

/박선옥기자

‘직선의 미학’ 신형 카니발

기아차 막바지 테스트 돌입…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

기아자동차가 내년 상반기에 출시할 미니밴 카니발(북미 판매명 세도나) 후속 모델이 국내외에서 막바지 테스트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카니발은 1998년 처음 탄생해 기아차를 'RV 왕국'으로 이끈 주역이다. 2005년 2세대 모델(VQ)이 나왔으며, 이번에 선보이는 건 3세대 모델(YP)이다.

최근 월드카팬즈닷컴이 보도한 사진을 보면 위장막 사이로 보이는 실루엣은 현재의 기아차 패밀리룩과 약간 다르다. 전체적으로 직선을 강조한 차체는 훈다 오딧세이를 떠올리게 한다.

각진 모습이지만 헤드램프를 뒤로 늘리고 넓은 라디에이터 그릴을 달아 공기역학적인 성능에 신경 썼음을 알 수 있다. 테일게이트 위에는 리어 스포일러도 장착돼 있다.

파워트레인은 현재 카니발에 탑재된 2.2 디젤 엔진을 기본으로 하고, 북미 시장에는 기존의 V6 엔진 대신 2.0 T-GDI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장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2.0 T-GDI 가솔린 터보 엔진은 현대 쏘나타와 기아 K5에도 장착된 엔진으로 동급 최고 수준의 출력을 갖춰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카니발은 오토캠핑과 레저 붐을 타고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2만7055대가 판매되면서 지난해보다 5.3%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에 쏘렌토R와 스포티지R, 쏘울은 모두 판매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카니발의 인기는 더욱 돋보인다.

데뷔 무대는 2014 디트로이트 모터쇼 또는 2014 뉴욕 모터쇼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부산모터쇼가 유력한 데뷔 무대다.

/이정택기자 ferrari5@metroseoul.co.kr

KTH 2분기 연속 흑자

모바일앱·게임 접은 덕분

3년 연속 적자에 시달리던 KTH가 올해 들어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졌다.

KTH는 2013년 3분기에 매출액 329억원, 영업이익 23억원을 달성하면서 지난 2분기에 이어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전분기 대비해서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6%, 8.5% 상승하며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이 같은 실적은 상반기 부진했던 모바일 앱 및 온라인게임 사업을 종료하는 등 적자 요인을 감소시키고, 영화 등 콘텐츠 유통과 플랫폼 사업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3분기까지의 KTH 누적 매출은 910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 845억원 대비 7.7% 증가했으며, 누적 영업적자도 지난해 87억원 대비 4억원으로 대폭 개선돼 2013년 연간 흑자 전환의 토대를 마련했다.

KTH 신승용 경영기획실장은 "KTH는 콘텐츠 유통과 플랫폼 사업 등 주요 사업 영역에서 수익을 확대하는 한편 All IP 기반의 T-커머스 시장에 국내 최초로 진출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4분기에도 흑자 흐름을 유지해 연간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zen@

프랑스 가는 스마트 로봇 '아띠' SK텔레콤은 교육용 스마트 로봇 '아띠' 를 프랑스에 수출한다고 5일 밝혔다. 이 회사는 프랑스 회사 빅로봇에 아띠 1000대를 공급하는 수출계약을 최근 체결했다. 빅로봇은 IT기술이 적용된 첨단 기기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회사로, 아띠를 프랑스 공교육기관과 유아교육기관에 유통할 계획이다. /SK텔레콤 제공

‘삭제 불가’ 애플리케이션 44개

국내에 출시된 스마트폰에 지울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이 평균 44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신 스마트폰 4개 기종에서 기능적으로 꼭 필요한 앱을 제외하고 기본 탑재된 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4가 38~54개, 갤럭시노트3가 46~58개, LG전자의 옵티머스G 프로가 31~40개, 옵티머스G2가 33~49개의 앱을 기본 탑재하고 있었다.

통신사별로는 SKT가 23~26개로 기본 탑재 앱이 가장 많았고 KT가 11~22개, LGU+가 10~17개로 나타났다.

문제는 갤럭시노트3를 제외하고는 모든 스마트폰에서 이들 앱을 삭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경실련은 "삭제가 안 되는 기본 탑재 앱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경쟁 사업자를 배제할 뿐 아니라 부당 거래를 유인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한다"며 "통신사들이 자진 시정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 고발하고 위법 소송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네이버 단문형 SNS ‘미투데이’ 문 닫는다

페이스북·트위터에 밀려… 내년 6월30일 서비스 종료

내놓는 서비스마다 성공한 네이버의 연승 가도에 제동이 걸렸다.

'한국판 트위터'를 표방해온 단문형 SNS '미투데이'가 내년 6월 30일로 서비스를 종료한다.

네이버는 5일 이같이 밝히고 서비스 종료 시점까지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미투데이는 2007년 2월 국내 최초의 SNS로 첫선을 보인 이래, 네이버가 2008년 12월 인수한 이듬해인 2009년 주간 순방문자 수에서 트위터를 앞섰다.

최근 다음의 '요즘', SK컴즈의 'C로그' 등이 서비스를 종료하는 상황에서도, '미투데이'는 토종 SNS로서 명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에 결국 손을 들게 됐다.

실제 각종 지표를 보면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장세는 뚜렷한 반면 미투데이는 서비스 활동성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가 급감했고 그 미저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 사실상 서비스 운영 및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네이버 측은 "글로벌 무한 경쟁 환경하에서 제한된 리소스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전략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성훈기자

라이나생명 암보험 80세까지 가입 가능

라이나생명보험이 고령자 대상 암보험인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의 가입 연령을 80세로 확대했다. 가입 나이에 제한 또는 인수 기준을 완화해 실버암보험 상품을 다시 출시한 것. 라이나생명은 지난해 7월 국내 최초로 고령자 전용 암보험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 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고령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고혈압, 골다공증 같은 노인성 질환에 대한 무심사를 적용해 고령자들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간편 심사 상품으로 고안됐다.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은 61세에서 80세까지의 고령자들이 가입 가능하도록 고안된 10년 만기 암보험 상품이다. 10년 단위로 갱신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위암, 대장암, 간암 등 일반 암(유방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암치료보험금 최대 2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400만원을 보장받는다. /김민지기자 (min) @

위메프 '거침없는 질주 본능'

주간 순방문자수 업계 1위… "선내실 후확장 통했다"

서비스 개시 3돌을 맞은 소셜커머스 위메프(대표 박은상)의 최근 행보가 관련 업계에 주목을 받고 있다.

위메프는 지난 4일 자사의 순방문자 수(UV)가 경쟁사인 쿠팡과 티몬을 모두 제치고 업계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웹사이트 순위 분석기관인 닐슨코리안클릭의 10월 넷째 주(10월 21~27일) 자료를 토대로 순방문자 수가 351만6632명을 기록하며 전체 순위 18위를 차지, 소셜 업계 최강자였던 쿠팡(349만2095명, 19위)과 티몬(237만1076명, 33위)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고 소개했다.

위메프 측은 UV 1위 달성은 이미 10월 초부터 예견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메프가 10월부터 벌이고 있는 소비자 직접 혜택인 ▲5% 포인트 적립 ▲200% 소셜최저가 보상제 ▲9700원 이상 배송 상품에 대해 무료 배송과 이승기·이서진을 내세운 공중파 TV 광고를 내세워 쿠팡과의 트래픽 격차를 조금씩 줄여왔던 것이다.

그동안 위메프는 쿠팡, 티몬에 이어 '만년 3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받았다. 하지만 외국계 업체들이 즐비한 소셜커머스에서 유일한 토종 기업의 저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위메프는 9월 마지막 주 UV는 쿠팡 393만1241명, 위메프 256만7707명으로 136만3534명의 격차가 있었다. 하지만 10월 첫째 주 격차를 28만1141명으로 크게 줄였다. 이후 둘째 주와 셋째 주 50만 명대의 격차를 유지하다 10월 넷째 주에는 마침내 역전에 성공하며 업계 1위를 달성했다.

위메프는 2010년 10월 오픈 첫해 39억원이던 거래액이 2013년 7월 기준 857억원으로 21배 이상 성장했다. 특히 올해부터 시작한 5% 포인트 적립제, 소셜커머스 최저가 보상제 등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연매출 상승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전체 매출에서 모바일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 2012년 35~40% 선이던 것을 올해 상반기 45~50%까지 끌어올렸다. 내년 상반기에는 최소 40~6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위메프 측은 PC에 있던 기본 기능들이 모바일로 온전히 구현되는 것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개인화 추천과 동기화, 각종 푸시 커뮤니케이션 등의 고도화 작업 등을 벌인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고 있다.

특히 좋고 믿을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싸게 판매한다는 쇼핑의 기본에 충실한다는 계획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위메프의 최종 목표는 소셜커머스 1위가 아닌, 30년 이상을 지속할 수 있는 유통 브랜드로 성장하는 것이다"며 "800명 임직원 모두 위메프가 '국민 유통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런 믿음은 위메프가 2010년 창립 이후 현재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큰 원동력이 됐다"고 소개했다.

박유진 위메프 홍보실장은 "위메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소비자 관점이다. 트래픽이나 매출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2010년 10월 업계 1위로 시작했던 위메프가 3년 만에 다시 트래픽 선두에 나서게 됐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또 "이는 '선내실 후확장'의 전략이 맞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라며 "위메프는 한국의 자세나 유통 채널의 대표라는 장기 목표를 갖고 고객의 돈과 시간을 아껴준다는 위메프의 사명을 끝까지 실천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영일기자 [email]@metroseoul.co.kr

중도금 무이자에 발코니 무료확장… 왕십리 '텐즈힐' 주목

최근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브랜드 미분양 단지들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서울 도심권에 위치하면서 대단지인 왕십리뉴타운1구역 '텐즈힐'은 알뜰한 수요자들에게 최상의 조건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텐즈힐은 현재 일부 세대에 중도금 무이자와 발코니 무료 확장 등의 특별 혜택을 주고 있다.

전용면적 129㎡ 이상의 대형 면적에는 할인과 계약조건 보장제를 실시해 고객들의 부담을 한층 덜었다.

텐즈힐 분양 관계자는 "텐즈힐의 경우 입지, 규모, 학군, 교통 등이 잘 갖춰져 있는 대단지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이번 혜택을 비롯해 올 12월 말까지 적용되는 정부의 세금 감면 등의 수혜까지 이용한다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왕십리뉴타운 1구역 텐즈힐은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 등 4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시공했다.

총 사업면적 10만여㎡에 최고 지상 25층 21개 동 전용면적 59~148㎡ 총 1702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문의 (02)777-7772

교육·문화·교통 갖춘 '사직 롯데캐슬 더클래식'

롯데건설은 이달 중순 부산 동래구 사직동 사직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인 '사직 롯데캐슬 더클래식'을 분양한다.

지하 3층, 지상 20~34층 8개 동, 총 1064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전용면적 59~124㎡ 764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이 중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이 약 85%를 차지한다.

사직 롯데캐슬 더클래식이 들어서는 부산 동래구는 전통 부촌 지역으로 교육, 문화, 교통 환경이 뛰어난 부산의 대표 주거지로 꼽힌다.

특히 단지 인근으로 부산의 명문 학군인 동인고, 동래고와 지역 명문 여자 고등학교인 사직여고, 중앙여고, 남문초교, 부산교대 부설초교가 위치했다. 또 여고초, 여명중, 온천중·사직중 등도 가깝다.

부산지하철 3호선 사직역은 걸어서 이용 가능한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간선도로인 거제대로와 충렬대로가 인접해 교통이 편리하다.

분양 문의 (051)524-0030

브라비스 브랜딩 세미나

세계적인 브랜딩 컨설팅 기업 브라비스 인터내셔널(www.bravis.com/kr)이 7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제4회 브라비스 브랜딩 세미나-서울'을 연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브라비스 인터내셔널의 이번 세미나 주제는 '성공 사례로 배우는 불황을 이겨내는 브랜딩 노하우'다. 일본 유명 기업의 임원급 브랜딩 전문가들이 참석해 글로벌 시장의 불황 속에서도 개성 있는 패키지 디자인과 차별화된 브랜딩으로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친 사례와 그 과정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내 유명 브랜드 제품 패키지 디자인 참여로 잘 알려진 브라비스 인터내셔널의 사사다 후미 대표를 비롯해 일본의 유명 제과 유제품 업체인 메이지제과의 디자인 기획부장 혼다 쇼헤이와 일본의 음료 제조 전문업체 산토리의 아트디렉터 나가타 이사미가 참여해 성공적인 패키지 디자인과 브랜드 관리법 등에 대한 강연과 논의를 진행한다.

'제4회 브라비스 브랜딩 세미나-서울'의 참가 대상은 기업 담당자 및 브랜딩 관련 업계 종사자며 참가비는 무료다. 참가 신청은 홈페이지(www.bravis.co.kr)를 통해서 가능하다.

‘한국교육’에 스웨덴 시끌

사민당 대표 롤모델 제시에
장관-언론 “입시 지옥” 비난

스웨덴은 한국 교육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한국 교육의 질은 스웨덴보다 훨씬 뒤떨어진다.”

스웨덴 정가가 ‘한국 교육 본보기’ 논란으로 떠들썩하다. 최근 한국을 찾은 테판 로벤 사민당 대표가 한국 교육의 우수성을 높게 평가하며 본보기로 내세우자 얀 비외르크룬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

비외르크룬드 장관은 “로벤이 한국을 교육적 롤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교육의 질은 스웨덴보다 훨씬 뒤처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0개국의 고등교육 시스템을 평가하는 U-21 순위에서 최근 스웨덴은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지만 한국은 24위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말 한국을 방문한 로벤 사민당 대표는 일간지 더겐스 인듀스트리(DI)에 기고문을 통해 “지난 10년간 한국 교육은 매년 5% 이상 성장했다. 하지만 스웨덴은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한국 학생들은 학업 목표를 높게 설정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국 교육의 우수성을 두고 정치인들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일부 스웨덴 언론은 ‘입시 지옥’으로 불리는 한국의 교육 현실을 비판했다.

현지 일간 바로메테른-OT는 “치열한 입시 경쟁을 빼고 스웨덴이 한국에서 뭘 배울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조선미기자 seonm@metroseoul.co.kr

생큐 거품축제 ‘실벌한 선후배’ 4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세인트앤드류스대학교에서 열린 ‘레이즌 위켄드(Raisin Weekend)’ 행사에서 학생들이 거품 싸움을 하고 있다. 레이즌 위켄드는 신입생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준 상급생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건포도(raisin)를 선물하는 전통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현재는 건포도 대신 포도주를 선물하고 거품 싸움을 하는 형태로 자리를 잡았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셸 여사도 담근 김치’ NYT 광고 눈길

“이번 주말 당신의 식탁에서 김치의 건강하고 매운맛을 느껴 보세요.”

4일자(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 10면에 이 같은 광고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 드라마 ‘로스트’로 미국인들에게도 유명한 영화배우 김윤진이 모델로 등장하는 이 광고는 ‘김치?’라는 제목 아래 “미국 영부인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김치 담그는 법을 트위터에 올리자 매운맛의 정인 배추에 엄청난 관심이 모아졌다”고 적고 있다.

이번 광고를 기획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미국 내 일본식 또한 작은점에서는 김치를 기무치로 판매하고, 중국마트에서도 포기김치를 팔고 있어 김치의 원산지가 한국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면서 “김치가 한국 음식이라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국현기자 krh@

‘가상소녀 채팅’ 낚인 글로벌 변태 2만명

아동 성 착취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기획된 ‘10살 가상 소녀 화상채팅’에 1000명이 넘는 소아성애자가 걸려들어 충격을 주고 있다.

네덜란드 인권단체인 ‘인간의 대지’는 ‘스위티’라는 이름의 10살짜리 필리핀 소녀를 가상 인물로 만들어 화상채팅 서비스를 했더니 10주 동안 71개국, 2만여 명이 웹 카메라를 통해 스위티에 성적 행위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예를 들어 미국 애틀랜타 출신으로 두 아이의 아버지라고 밝힌 35세 남성은 “10달러를 줄 테니 옷을 벗어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 단체는 스위티와 채팅한 남성 중 1000여 명의 신원을 확인해 경찰에 넘겼다.

확인된 국적은 미국 254명, 영국 110명, 인도 103명으로 일본과 한국인도 있었다. /이국현기자

신입사원 덜 뽑고 경력자는 더 뽑고

신입 채용은 줄고 경력 채용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2년간 주요 대기업들의 채용 공고 1315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제조·통신·화학·건설' 업종의 기업들이 전체 63.3% 비율로 채용을 가장 많이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서비스·교육·금융·유통(25.2%), IT·정보통신(9.4%), 미디어·광고·문화·예술(2.1%) 순이었다.

한편 대기업들의 채용 공고 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45.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49개였던 공고 건수는 올해 466개로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경력 채용은 지난해의 경우 전년 대비 5.5% 증가하는 등 매년 지속적인 상승률을 보였다.

취업포털 잡코리아 김화수 사장은 "신입사원을 뽑으려는 기업들은 감소하지만 경력자를 채용하려는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신입 구직자들의 취업이 날로 힘들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55만원 보급형 스마트폰 '갤럭시 윈' 삼성전자가 쿼드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한 50만원대 보급형 스마트폰 '갤럭시 윈'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통해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품은 4.6인치(11.3㎝) 화면에 1.4㎓ 쿼드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했으며 롱텀에볼루션(LTE)을 지원한다. /삼성전자 제공

'10년 근속' 온가족 해외여행 선물

이국명 기자의 알짜기업 탐방

에이티젠 ③

"정해진 출근 시간이 오전 8시 반인데 한 시간 전부터 나와 일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자율적으로 나오니 말릴 수도 없고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암 진단 키트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바이오 벤처 에이티젠 최우식 이사는 회사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얼핏 들기에는 초과 근무와 야근이 일반화된 기존 벤처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아 실망감마저 들었다. 하지만 사내에서 만난 직원들의 얼굴은 과도한 업무에 찌든 여느 벤처기업 근로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여유로움 뿐만 아니라 미소까지 가득한 얼굴은 비결이 궁금해질 정도다.

하지만 에이티젠의 복지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는 순간 이 같은 궁금증은 하나둘 풀려나갔다. 우선 에이티젠의 퇴근 시간은 오후 5시 반이다.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들이 마음 놓고 저녁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 직원이 칼퇴근한다. 이 덕분에 야근은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하다.

에이티젠 직원들이 사내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암 진단 키트 개발 '저력'… 영업이익 8배 성장세
식사 무료·5시반 칼퇴근·무비데이 등 복지 화제

직원들의 식사도 회사가 전부 책임지고 있다. 아침과 간식용으로 빵과 김밥을 매일 배달시키는가 하면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무료로 제공한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진행하는 '무비데이'라는 특별한 행사도 눈길을 끈다. 오전 팀별 회의를 마친 후에는 전 직원이 함께 영화를 감상하는 방식이다. 이후에는 대표이사까지 참석하는 회식을 통해 회사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비전을 공유해 직원들의 호응이 매우 높다.

장기 근속자 대우도 특별하다.

10년 근속 직원에게는 전 가족 해외여행을 선물한다. 올겨울에만 2명의 직원이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즐길 계획이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매년 퇴사자가 1~2명에 그칠 정도로 적다.

◆ 내년까지 수시 채용으로 30명 채용

웬만한 직장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복지제도를 에이티젠이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사업에 대한 자신감 덕분이다. 2002년 설립 후 꾸준히 연구 개발을 해온 결과, 현재 2600여개 단백질과 270여 개 항체를 상용화해 세계 200여 개 대학 및 기업 등에 수출하고 있다. 특히 인체에서 매일 생성되는 암세포를 찾아 파괴시키는 선천적인 면역세포인 NK세포의 활성화 지수를 측정해 암은 물론 면역 시스템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NK 뷰 키트'는 지난해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덕분에 올해부터 한국의학연구소(KMI), 강남세브란스병원, 정담NK클리닉 등에서 검진에 사용하고 있고 일본·터키·북미는 물론 중국의 2대 건강검진 전문병원과도 서비스 협의를 하고 있다.

경영 실적도 내년부터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매출 20억원, 영업이익 5억원에 불과했지만 내년에는 매출 80억~100억원, 영업이익 30억~40억원을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를 함께 누리기 위해 올 들어 30여 명의 신규 인력을 확충해 전체 직원이 60여 명으로 늘어났다. 내년 말까지는 수시 모집을 통해 30여 명의 직원을 더 뽑을 예정이다. 수시 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tgen.co.kr)와 전화(031-8017-8114)로 문의하면 된다. /kmlee@metroseoul.co.kr

이런 인재를 원한다

실패 두려움 없고 솔직한 그대, 오라!

"에이티젠은 벤처이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임직원과의 호흡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현재는 벤처기업 수준의 연봉이지만 내년부터 성과가 나기 시작하면 업계 최고 수준을 보장할 방침이다."

최우식 에이티젠 경영지원팀 이사는 이같이 약속했다. 경영의 결실을 직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라는 설명이다.

-직원들의 얼굴이 매우 밝다

▲회사를 방문하는 사람들 대부분 직원들에 대한 칭찬을 빼놓지 않는다. 처음 보는 방문객에게도 모든 직원들이 웃으며 인사하는 분위기는 다른 벤처기업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 자부한다. 그만큼 모든 직원이 높은 애사심을 지닌 덕분이라 생각한다.

-채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

▲벤처업체답게 매우 간단하다. 서류심사, 면접, 신체검사가 끝이다. 해당 팀장이 합격점을 주면 그 다음날 바로 채용 통보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합격 비법을 공개한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인재를 원한다. 그동안의 삶에서 경험했던 장점은 물론 단점까지 솔직하게 밝히면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최우식 경영지원팀 이사

'대졸 초봉 4000만원' 세아상역 공채 손짓

국내 대표적인 의류 제조·수출기업인 세아상역이 내년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한다. 세아상역은 대졸 신입사원 초봉이 4000만원인 알짜기업으로 유명하다.

해외 영업과 경영 지원 부문 등에 전공 제한 없이 20~30명의 인재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 대상은 4년제 대학 졸업자나 내년 2월 졸업 예정자다. 해외지사 근무가 가능한 사람과 외국어 우수자를 우대한다.

지원서류는 17일까지 회사 홈페이지(sae-a.saramin.co.kr)를 통해 내면 된다.

세아상역은 서울대·연세대·한국외대·성신여대·성균관대·부산대·전남대 등 전국 주요 대학 캠퍼스에서 채용 설명회도 진행 중이다. /이국명기자

송창식·이장희·최백호·한영애 '4인4색 낭만콘서트' 20~21일 개최

감성 깨우는 포크의 향연

송창식·이장희·최백호·한영애(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한국 가요계의 대표적인 포크 가수 4인이 한 무대에 오른다.

송창식·이장희·최백호·한영애가 출연하는 '낭만콘서트 시인시색(詩人詩色)-송창식 이장희 최백호 & 한영애'가 20~21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한국 포크음악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이들이 함께 콘서트 무대를 꾸미는 건 처음이다.

'고래사냥'으로 피리부는 사나이' 등으로 유명한 싱어송라이터 송창식과 '그건 너'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등을 히트시켜 1970년대를 풍미한 이장희가 386세대를 전후한 중년들에게 추억의 노래를 선사한다.

여기에 두 사람의 싱어송라이터 계보를 이어온 후배 가수 최백호와 한영애가 합류를 결정했다.

이 밖에 1970~80년대 대표 DJ인 김광한과 '시인과 촌장'의 멤버였던 기타리스트 함춘호도 함께해 옛 명동의 음악 다방 분위기를 고스란히 재현한다.

문의 032)433-4595

/박란희기자 lake0427@metroseoul.co.kr

※ 원작 「명예의 조각들」(로이스 맥마스터 부졸드 지음 / 씨앗을뿌리는사람 출간)은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입니다

휘성·거미 듀엣무대 열린다

8년만에 호흡… 내달 31일 코엑스서 폭풍 가창력

남녀 R&B 대표 주자 휘성(사진 오른쪽)과 거미(왼쪽)가 8년 만에 듀엣 콘서트로 뭉친다.

이들은 10년 전 거미의 데뷔 앨범에 수록된 첫 듀엣곡 '두 잇'을 이번 공연의 제목으로 내세워 당시의 감동을 되살릴 계획이다. 다음달 31일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열릴 이번 콘서트는 휘성이 먼저 제안했고, 거미가 흔쾌히 수락하면서 성사됐다.

휘성과 거미는 각각 2002년과 2003년에 YG엔터테인먼트의 계열사인 엠보트에서 가수 활동을 시작하며 남다른 친분을 이어왔다. 휘성은 특유의 호소력 짙은 가창력에 극적인 퍼포먼스를 더하며 콘서트에서 자신의 진가를 확인시켰었다. 거미는 관객을 압도하는 가창력을 앞세워 대표적인 여성 솔로 가수로 인기를 얻어왔다.

이번 콘서트는 휘성이 8월 군 복무를 마친 후 처음 개최하는 공연이며, 최근 JYJ가 소속된 씨제스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거미의 첫 공연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쏠린다. 서울에 이어 부산·울산·대구 등 지방 공연 일정도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장순현기자 sun@

엑소·이유비 '멜론 뮤직 어워드' MC

아이돌 그룹 엑소가 대형 음악 이벤트의 메인 MC를 꿰차며 다시 한 번 대세임을 입증했다. 엑소는 배우 이유비(사진)와 함께 14일 개최되는 '2013 멜론 뮤직 어워드' 진행을 맡는다.

엑소는 MBC '쇼! 음악중심'과 SBS '인기가요'에서 스페셜 MC를 맡아 매끄러운 진행 실력을 인정받았다. 이유비는 중견배우 견미리의 딸로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MBC 드라마 '구가의 서'를 비롯해 각종 드라마와 예능, CF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리고 있다.

한편 그동안 '멜론 뮤직어워드'에는 1회 장근석, 2회 송중기, 3회 이특·박신혜·윤두준, 4회 문희준·데니안·이기광·남우현이 MC로 발탁돼 활약했다. '멜론 뮤직 어워드'는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정해욱기자 jwh@

대선주조
어제
과음한줄 몰랐다!
뒤끝 없이 깨끗한
예 괜찮네~
수돗물을 섞지 않은
천연암반수100%
2013 항구도시와의 만남
부산 · 함부르크 · 상해 만남의 교류전
2013년 12월 3일(화) - 12월 22일(일) 부산진(기차)역
부산광역시
DAVIN art space 다빈예술공간협회
대선주조
Hamburg
함부르크시문화국
상해미술가협회

새로 나온 책

시/에세이

다음에서 미음으로 이외수/김영사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에서 얻은 파격의 성찰에서 깨달음의 지혜까지 이외수가 세상과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를 후배 소설가 하창수와의 대담을 통해 담아냈다. 대화의 주제는 일상적이고 소소한 질문에서 세상과 우주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물음까지 예술, 인생, 세상, 우주로 나누어 진행됐다.

심리

남자, 왜 이러는 걸까요? 페어드리에 박그네/웰더

여자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웠던 남자들의 행동을 분석하고 대처방안을 제시했다. 남자를 자체 결함을 지닌 제품으로 설정하는 이 책은 여자들의 예상에 비해 남자들이 얼마나 단순하고 부족한지를 전한다. 아울러 남자의 본능이 숨겨있는 방향과 패턴도 귀띔해 준다.

소설

카운슬러 코맥 매카시/민음사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작가가 쓴 첫 시나리오. 마약 밀매 조직이 기승을 부리는 멕시코 국경도시 후아레스에서 2000만 달러어치의 마약 밀매가 추진된다. 영화 '블레이드 러너'의 리들리 스콧 감독이 영화화해 이달 중 개봉된다.

빙과 요네자와 호노부/엘릭시르

애니메이션 '빙과'의 원작 소설인 고전부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으로 고등학생의 일상에 미스터리를 접목시킨 청춘 소설. 고등학교의 특별 활동 동아리 고전부에 소속돼 있는 학생들이 주변에서 벌어지는 수수께끼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담았다.

건강

50세부터는 탄수화물 끊어라 후지타 고이치로/니들북

"장수 유전자, 텔로미어와 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미토콘드리아, 장내 세균 등 미세물질을 모두 고려해 질병·치매·노화를 모두 예방하는 식습관을 소개한다. 저자는 인간의 수명을 결정짓는 물질을 식생활을 통해 활성화함으로써 질병 없이 장수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자기계발

박수받는 힘 김한주/책담

사람들 앞에 홀로 섰을 때 힘이 돼 줄 수 있는 말하기의 절대 법칙 18가지를 제시한다. 저자는 프레젠테이션의 처음부터 끝까지 '선제기습-집중-꿩꿩-대변인-결말'의 5단계가 이루어지는가 여부에 따라 그날의 프레젠테이션의 승패가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딸에게 힘이 되는 아빠의 직장 생활 안내서 김출돈/담론인

삼사도 장천에 목말라 한다. '인사는 때로 불공평하다' '보고는 타이밍이다' '혼자 밥 먹지 마라' '말할 필요가 없을 때는 침묵하라' 등 32년간 공무원 생활을 한 아빠가 사원인 둘째 딸과 3년차 직장인인 첫째 딸에게 직장생활의 원칙을 전한다.

예술/대중문화

이중섭 편지와 그림들 이중섭/다빈치

소를 그린 화가로 알려진 이중섭의 예술에 대한 고뇌, 담구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이 녹아있는 작품들과 더불어 가장 어려웠던 시절, 아중섭이 아내 남덕·아들 태현·태성에게 보낸 편지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땐 미처 몰랐던 클래식의 숨거름 홍승찬/책읽는수요일

천재의 작곡가, 오페라 가수, 지휘자, 연주자, 현대의 대중 가수 등 음악가들의 인생과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삶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클래식 음악이라는 한정된 카테고리에서 벗어났다. 예술에 대한 열정과 고집, 유머와 재치를 엿볼 수 있다.

철학과 깜짝한 일주일 게르하르트 머튼스/제엘리

분석철학을 쉽게 공부한 독일 철학자가 독자와의 문답 형태로 철학의 세계를 소개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할까' '도덕은 얼마나 객관적인가'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 등 요일별로 7가지 주제를 다뤘다.

우린 왜 살고 사랑할까

공지영 5년 만에 새 소설

6·25때 한국인 위해 헌신한 이방인 성직자들의 삶 통해 인생대한 근본적 질문 던져

높고 푸른 사다리
공지영/한겨레출판사

소설가 공지영이 '도가니' 이후 5년 만에 새 장편소설 '높고 푸른 사다리'를 출간했다.

저자는 6·25전쟁 당시 1만4000명의 한국인을 구조한 마리너스 수사와 한국을 위해 일생을 바친 이방인 성직자들의 삶을 통해 사랑의 의미와 인간적 품위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소설은 신부 서품을 앞둔 30대 젊은 수도회의 젊은 수사가 '사랑'을 비롯한 일련의 사건을 겪으며 일어나는 변화를 1인칭 시점에서 서술한다.

주인공 요한은 소희를 만나 사랑을 하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통은 왜 있는 것이며, 인간은 왜 존재하는지, 사랑은 무엇인지" 등을 질문하면서 성장해 나간다.

소설은 다양한 사랑 이야기를 들려준다. 요한과 소희를 비롯해 미카엘과 미카엘의 여자친구 등 남녀 사이의 사랑뿐 아니라 모니카와 어린 요한 등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이야기, 수도사들의 인간과 신을 향한 사랑 이야기 등이다. 이들의 이야기는 혼자로는 지극히 약하기만 한 인간에게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준다. 저자는 사랑을 신의 다른 이름이고 우주의 다른 이름이라고 정의한다.

이 소설의 키워드는 '도대체 왜?'다. 저자는 '작가의 말'에 "소설을 쓰기 전인 2012년은 많이 힘든 해였다. 나는 '하느님 대체 왜?'라는 오래된 물음과 격렬하게 씨름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2013년을 맞으며 상황이 어려울수록 상황 자체에 집착하지 말고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질문하는 본연의 태도로 돌아가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다"고 썼다.

소설의 이야기들을 죽 따라 걷다 보면 잠시 멈추게 된다. '내 생에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것, 마지막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일까?' 하면서.

/박지원기자 sos@metroseoul.co.kr

책 속 한 컷 아이 러브 뉴욕

뉴욕은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한 잠들지 않는 도시다. 고층 빌딩과 명품 쇼핑 거리, 그 속에서 즐기는 문화·예술 산책이 여행의 흥을 돋운다. 사진은 뉴욕의 랜드마크로 우뚝 선 LOVE 조형물. 1960년대 팝아트 작가 로버트 인디애나에게 미술관이 의뢰해 만들었던 카드 디자인을 다시 조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강조체로 만들어진 조형물로 강렬한 채도를 사용한 빨간 색상과 푸른빛을 내고 있는 파스텔톤의 조화는 햇빛을 받으면 더욱 밝을 빛난다. - 랄랄라 뉴욕 (정기현/중앙북스) 중 - /박지원기자

거짓말 예찬! 양심에 스크러치를 허하라

화제의 책

거짓말의 힘
우테 에어하르트, 빌헬름 요산/청림출판

모든 진실은 항상 통한다고 생각하는가? 모든 거짓말은 항상 나쁘다고 생각하는가? 천만에! 이제까지 당신이 믿었던 진실과 거짓말에 대한 생각은 틀렸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또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항상 거짓말을 하며 살아간다. 나쁜 평판은 숨기고 그럴듯한 포장으로 언제나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한다. 이렇듯 거짓말은 인간의 본성이며 삶의 필수 요소다.

저자는 '거짓말은 나쁘다'라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거짓말의 유용성을 확고들며 거짓말의 놀라운 힘을 전한다. 거짓말은 자존감을 높이고 갈등을 없애며 사회적 성공을 도와 결국 더 나은 행복을 우리에게 선물하는 존재다. 이것이 저자가 말하는 거짓말의 진정한 힘이자 우리 행복의 근원이다.

게다가 거짓말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기 기만'을 통해 자신감 회복을 이끌고 인간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특히 저자는 거짓말이 최고의 지적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함으로써 거짓말이 주는 불편한 감정에서 벗어난 삶의 유연성을 제공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더 진실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책은 심리학적 이론과 거짓말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거짓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더 나아가 거짓말이 언제 어떤 식으로 등장하는지 알아채는 감각도 선사한다. 때로는 진실보다 거짓말이 진실하다.

/윤휘용기자 fasol36@

미스에이가 6일 출시되는 2집의 타이틀곡 '허쉬'에서 도발적인 몸춤을 선보인다. 왼쪽부터 민, 페이·지아, 수지. JYP엔터테인먼트 제공

당당함 벗고 달콤·섹시 입었다

miss A

이별 앞에 당당한 독립적인 여성상을 전면에 내세웠던 미쓰에이(지아·민·수지·페이)가 달콤한 사랑을 속삭이는 성숙한 여인으로 돌아왔다. 1년1개월 만의 새 앨범이자 2년4개월 만에 발표하는 정규앨범인 2집 '허쉬'는 네 멤버의 무르익은 매력과 음악성을 가득 담고 있다.

–긴 공백기를 보내고 돌아온 소감은.

멤버 개인 활동이 많아서 한동안 서로 얼굴 보기도 힘들었는데 다시 팀으로 뭉치니 초심으로 돌아가는 기분이다.

무엇보다 오래 기다린 팬들에게 미안하고 고맙다. 가수로서 무대에 매일 설 수 있게 돼 행복하다.

–타이틀곡 '허쉬'는 어떤 곡인가.

사랑하는 이와의 키스와 달콤한 속삭임, 짜릿한 끌림을 표현한 노래다. 미쓰에이 특유의 공격적이며 잔잔한 색채로 표현한다. 강하면서도 절제된 퍼포먼스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전까지는 마치 무용학교 학생들의 무대였다면, 지금은 학교를 졸업한 '어른 좀 아는 언니'들의 성숙한 모습을 기대해도 좋다.

'허쉬' 들고 돌아온 걸그룹 미쓰에이

가장 대중적 노래에 심플한 의상 · 수지 "변신 재밌어"

–기존 타이틀곡들과 비교해 듣기 편한 음악이다.

지금까지 부른 것 중 가장 대중적인 노래다. 우리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 줄곧 박진영 PD님의 노래를 불렀는데 이번 곡은 이트라이브가 작곡했다. 박자부터 다르다. 처음 이 곡을 접하고 어쿠스틱한 분위기에 놀라서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불러도 되나' 싶을 정도로 새로웠다. 무엇으로 갈수록 다이내믹한 전개가 인상적이다. 가사도 마음에 든다. 키스를 부르는 노래라고 할까.

–박진영이 타이틀곡을 쓰지 않은 것에 대해 멤버들 사이에서나 소속사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지는 않았다.

회사 전 직원은 물론 박진영 PD님도 매우 만족한 곡이다. 녹음 전 내부 모니터링을 하는데 역대 미쓰에이 노래 중 가장 점수가 높게 나왔다.

–배를 노출하고 몸에 달라붙는 과감한 의상이 인상적이다.

의상의 콘셉트는 심플이다. 멤버 모두 액세서리까지 똑같이 맞췄다. 퍼포먼스를 잘 표현하면서 도발적인 매력이 느껴지도록 타이트한 의상을 준비했다. 배가 드러나는 것은 그렇게 노출 수위가 높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배까지 가렸으면 배꼽티가 될 뻔했다.

–미쓰에이의 안무는 늘 화제를 모아왔다. 이번에는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나.

봉을 이용한 필 동작, 네 명이 엉키면서 서로를 만지는 부분이 포인트 안무다.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안무는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이번에는 키스를 표현하는 손가락 안무가 쉽고 재미있을 것이다.

–과거 당당한 여성에서 사랑스러운 여성으로 변화를 준 이유는.

이전에도 앨범 수록곡들은 대부분 밝고 귀여운 것들이 많았다.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몽환적인 느낌을 주는 곡들이 많이 담겼다. 이것이 바로 우리 취향이다. 이번 2집은 성숙한 여인이 돼가는 과정과 앞으로 보여줄 미쓰에이 스타일을 제시하는 앨범이다.

–국민 여동생으로 불리는 수지는 평소의 청순한 이미지를 깨고 무대에서 과감한 변신을 하는데 부담이 없다.

개인보다 미쓰에이만의 개성이 중요하다. 국민 첫사랑이라는 이미지도 신경 쓰이기는 하다. 하지만 배우로서의 모습도, 가수로서의 이미지도 모두 내 것이다. 영역을 오가는 게 오히려 재미있다.

–얼마 전 열애설이 났지만 사귀는 사이는 아니라고 부인했다.

생일(10월 10일) 다음날 열애설이 났다. 잊지 못할 스무 살 생일 선물이 됐다. 계속 바쁘게 지내다 당시 못 본 친구들도 만나며 오랜 만에 찾아온 짧은 휴식기를 보냈다. 그렇게 됐다. 앞으로는 행동 하나하나도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사생활도 내 직업의 연장선에 있으니 앞으로도 열애든지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유순호기자 sun@metroseoul.co.kr

디자인/박은지

귀엽거나… 강렬하거나… 아이유·한채영 극과 극 매력

배우 한채영(오른쪽 사진)과 아이유(왼쪽)가 극과 극의 매력을 예고했다.

5일 드라마 제작사 그룹 에이트는 KBS2 새 수목드라마 '예쁜 남자'에 김보통과 홍유라 역으로 각각 출연하는 아이유와 한채영의 극중 사진을 공개했다.

아이유는 김보통이 갖고 있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매력이 돋보일 수 있도록 꽃무늬가 돋보이는 의상에 리본 머리띠, 꽃이 장식된 목걸이까지 온통 꽃으로 장식했다. 과감하게 변화를 준 단발 헤어스타일도 눈길을 끈다.

반면 한채영은 카리스마 넘치는 캐릭터를 연기하는 만큼 강렬한 스타일을 연출했다. 그는 짙은 화장에 검은 의상으로 자신의 캐릭터를 표현했다. 아이유의 사랑스러움과 한채영의 카리스마는 '예쁜 남자'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천계영의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예쁜 남자'는 20일 첫 방송된다. /황성운기자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웨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SBS 주말특별기획 '세 번 결혼하는 여자' 제작보고회에 출석한 배우 송창의, 이지아, 하석진 등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김수현표 멜로+가족극

'세 번 결혼하는 여자' 9일 첫방송… 이지아 합류

한국 드라마계의 거장으로 불리는 김수현 작가가 8개월 만에 돌아왔다.

김수현 작가는 3월 종영한 드라마 '무자식 상팔자'에 이어 '세 번 결혼하는 여자'(이하 '세결여')로 흥행 불패 신화를 이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세결여'는 그동안 지명적 멜로나 가족극으로 완벽히 장르를 나눴던 것과 달리 두 가지 장르를 혼합했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세결여'에서 오은수(이지아)와 정태원(송창의), 그리고 김준구(하석진)의 관계는 멜로에 가깝다. 그러나 이들을 둘러싼 가족들의 이야기가 맞물리면서 김 작가표 혼합 장르가 등장할 예정이다.

또 김 작가 특유의 대사 플레이와 소소한 재미를 주는 에피소드가 이번 작품에서 얼마나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높일지도 관심거리다.

'세결여'에는 이번에도 김수현 사단이라고 불릴 만한 배우들이 대거 출연한다. 전작 '무자식 상팔자'에 이어 엄지원과 하석진이 각각 오현수 역과 김준구 역으로 출연한다.

김수현 사단에 합류한 엄지원은 5일 진행된 제작발표회에서 "책임감도 있고 복잡한 심경이다"는 소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송창의 역시 '인생은 아름다워', '천일의 약속'에 출연하며 김 작가의 스타일을 파악한 바 있다.

김수현 작가와 세 번째 호흡을 맞추는 송창의는 배려심 깊고 점잖지만 대차지 못해 갈등을 회피하는 오은수(이지아)의 전남편 정태원 역을 맡았다. 송창의는 이지아에 대한 미련 때문에 재혼을 망설이는 상황을 그려나갈 예정이다.

송창의는 "어려운 역할인 만큼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다"며 "인생의 깊은 통찰을 표현하는 김수현 작가 작품 특성상 내가 캐릭터를 얼마나 잘 담아낼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부담감을 토로했다.

이번 작품에서 김 작가와 처음 호흡을 맞춘 이지아는 "김수현 작가의 작품에 출연해 정말 기쁘고 설레고 걱정도 많이 됐다. 하지만 동료들이 많이 도와줘서 편한 마음으로 촬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결혼을 요즘 시각으로 바라보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9일 첫 방송되는 '세결여'는 김수현 작가가 '천일의 약속' 이후 2년 만에 SBS로 컴백하는 작품으로, '내 연애의 모든 것', '보스를 지켜라' 조강지처클럽'의 손정현 PD가 연출을 맡는다. /황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사랑은 노래를 타고' 일단 합격점

뮤지컬 소재·젊은 배우 대거 기용… 동시간대 1위

실험적인 콘셉트로 첫선을 보인 KBS1 새 일일드라마 '사랑은 노래를 타고'가 합격점을 받았다.

5일 시청률 조사업체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첫 회 시청률은 전국 기준 23.5%로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작인 '지성이면 감천' 첫 회(21.6%)보다 높은 수치다.

'사랑은 노래를 타고'는 전통적인 일일드라마의 틀을 깨고 처음으로 뮤지컬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걸그룹 씨스타의 다솜 등 젊은 배우들을 대거 주연으로 기용한 것도 특징이다.

첫 회에서는 주인공인 뮤지컬 배우 지망생 들임(다솜)과 판우(백성현)와 첫 만남과 주변 인물과의 관계가 그려졌다. 이 드라마는 개인주의가 만연한 세태 속에서 가족 간의 고마움을 잃어가며 타인에게 준 상처를 반성해가는 세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다. /탁진현기자 tak0427@

헬로tv 수능특집 VOD관

2014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앞두고 CJ헬로비전의 디지털 케이블 방송 '헬로tv'가 수험생 및 학부모를 위한 수능 특집 VOD관을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헬로tv 가입자라면 누구나 헬로tv의 '파이팅! 수능특집관'에서 수능 관련 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볼 수 있다. CJ헬로비전의 수능특집관은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유익한 500여 편의 VOD를 카테고리별로 세분화하고, 수능 전과 후 상황에 따라 적절한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수능 당일인 7일 오전까지는 수험생과 가족이 남은 기간 동안 VOD를 이용해 효율적으로 수능을 준비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 8일 오전에는 각 영역별 출제 경향 분석, 난이도, 신유형 등 EBS에서 준비한 수능 과목별 해설 프로그램을 총 52편의 VOD로 제공한다. /정문경기자

가희 팬들에 식사대접하고 '시장 데이트'… 2PM 수능선물 준비하고

스타들 받기만 하는 사랑 NO!

'역조공' 새 트렌드

스타와 팬 사이에 '역조공'이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생겨나고 있다.

조공은 팬들이 자신이 따르는 스타들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을 일컫는 연예계 조어로, 팬서비스가 다양화되면서 스타들이 팬들에게 조공을 전하는 이른바 '역조공'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두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 '잇츠 미'로 활발히 활동 중인 가희가 특별한 미니 팬미팅을 가졌다. 지난달 30일 서울 광장시장에서 가희는 팬들을 위해 깜짝 데이트를 준비했다. 가희는 이날 'MBC뮤직 쇼 챔피언'의 방청을 함께했던 팬들 20여 명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메뉴로는 '광장시장'의 명물 빈대떡이 선정됐다. 가희는 팬들과 소박하고 소탈한 기념할 데이트를 하기 위해 특별히 시장을 선택했고, 가희와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눈 팬들도 만족했다.

그룹 2PM도 역조공에 나섰다. 이들은 수능을 앞둔 수험생 팬들을 위해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2PM은 4일 JYP엔터테인먼트 공식 트위터에 "수험생 팟티스트를 위한 2PM의 깜짝 선물 준비 과정 공개! 2PM이 응원한다! 후후훗. 디스 이즈 포 마이 하티스트!"라는 글과 함께 멤버들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2PM 찬성과 닉쿤(사진) 우영이 팬들을 위한 수능 선물을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김성현기자

정우 "김유미와 서로 알아가는 단계"

"3개월전 '붉은 가족' 계기로 만나… 결혼설은 사실 아냐"

유명세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배우 정우(사진 오른쪽)가 진짜 연인을 공개했다.

정우는 6일 개봉할 영화 '붉은 가족'에 함께 출연한 한 살 연상의 배우 김유미(왼쪽)와 교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 소속사 웰익터스 엔터테인먼트는 5일 오전 김유미와 열애·결혼설과 관련해 "3개월 전 '붉은 가족'의 후반 작업과 그 후 영화 관계자들이 함께한 식사 자리 등의 만남을 통해 호감을 갖기 시작했다.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이어 "현재 호감을 갖고 서로 조심스럽게 알아가는 시점에서 보도된 이번 기사로 인해 두 사람이 어색하고 서먹한 관계가 될까 정우 본인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보도로 인해 김유미씨에게 불필요한 관심과 오해가 쏠릴 것이 우려된다. 개인적인 일로 현재 촬영 중인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도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2년 영화 '품행제로'의 조연으로 데뷔한 정우는 2010년 첫 주연을 맡은 영화 '바람'으로 대종상 남우신인상을 받으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3월 종영한 드라마 '짝패'·'최고다 이순신'으로 탄탄한 연기력을 보여줬고, 케이블 tvN '응답하라 1994'의 주인공 쓰레기 역으로 출연하며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에는 경쾌한 과거 여자친구와 뒤늦게 열애설에 휩싸이는 등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한편 연인인 김유미는 드라마 '천사의 분노'로 데뷔해 '악인인 이재마', '진주목걸이', '위풍당당 그녀', '과거를 묻지마세요', '실맛나니다' 등에서 주연으로 활약했다. 영화에서도 본주의 활약해왔고 '붉은 가족'과 '블랙가스펠' 개봉을 앞두고 있다. /유순호기자 sune@metroseoul.co.kr

김범·문근영 데이트 또 걸렸네!

커플룩 입고 유럽여행 포착

한 작품에서 만난 인연이 실제 커플로 속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범(사진 왼쪽)과 문근영(오른쪽)의 다정한 데이트 장면이 또 한 번 목격됐다.

5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문근영 김범 해외여행 사진'이라는 제목과 함께 최근 열애를 인정한 김범과 문근영이 커플룩을 입고 유럽 여행을 하는 모습이 게재됐다. 이 사진에서 두 사람은 카키색 야상 점퍼와 검정색 바지, 신발로 커플룩 같은 의상 스타일을 연출해 눈길을 끈다.

앞서 두 사람은 최근 종영한 MBC '불의 여신정이'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며 연인으로 발전했다. 1일 열애설이 불거지자 "아직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조심스럽다. 예쁘게 봐줬으면 좋겠다"고 교제를 인정했다. /박선완기자 bsk0427@

슈주 멕시코·영국 콘서트

전 세계 100만 관객을 동원한 그룹 슈퍼주니어가 멕시코와 영국에서 처음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

슈퍼주니어는 7일 멕시코 멕시코시티 아레나, 9일 영국 런던 웸블리 아레나에서 월드투어 '슈퍼쇼 5'를 개최한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슈퍼주니어는 이미 한국 가수 사상 최대 규모의 남미 4개국 투어와 한국 그룹 최초 프랑스 단독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남미, 유럽 지역에서 뜨거운 인기를 입증한 바 있다. 이번 공연을 통해 세계적인 인기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줄 전망이다"고 밝혔다.

슈퍼주니어는 3월 서울에서 월드투어를 시작해 브라질 상파울루,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칠레 산티아고, 페루 리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싱가포르, 일본 도쿄, 태국 방콕, 대만 타이베이, 중국 상하이 등에서 공연했다. 이들은 6일 멕시코로 출국한다. /유순호기자

"소녀시대 미국서도 통한다"

올해 뮤비상 수상 소식 세계 언론들 집중 보도

소녀시대가 제1회 유튜브 뮤직 어워드에서 올해의 뮤직비디오' 를 수상하자 세계 주요 언론들이 이례적으로 큰 관심을 나타냈다.

CNN은 수상한 다음날인 5일 온라인 홈페이지에 'K-팝 걸그룹 소녀시대가 첫 유튜브 어워드에서 마일리 사이러스, 레이디 가가를 제치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했다. CNN은 "한국에서 소녀시대는 국가적인 현상"이라며 "그들은 이미 지난해 레이트 쇼 위드 데이비드 레터맨' '라이브! 위드 켈리'에 출연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에미넴과 소녀시대, 유튜브 뮤직 어워드의 큰 승자'라는 제목과 함께 "2012년 2월에 '소녀시대가 미국에서 통할 수 있을까?'라는 글을 썼는데 이번 뮤직비디오 수상을 통해 그 해답은 '그렇다'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수상에 의미를 부여했다.

USA투데이·ABC뉴스·뉴욕타임스·워싱턴포스트·뉴욕데일리뉴스 등의 미국 매체를 비롯해 영국 로이터·BBC, 프랑스 르피가로, 영 스위스 공영방송국 SRF, 캐나다 내셔널포스트, 호주 시드니 모닝헤럴드, 뉴질랜드 국영 TV인 텔레비전 뉴질랜드, 태국 방콕포스트, 일본 오리콘 등 세계 주요 매체들이 소녀시대의 수상을 언급했다.

USA투데이는 "소녀시대가 레이디 가가와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수상했다는 것은 분명히 젊은 가수들에게 충격이었다"고 평가했다.

소녀시대는 9~10일 홍콩 아시아월드 엑스포 아레나에서 월드투어를 진행한다. /유순호기자

star bag

오토바이 음주운전 사고

개그맨 이원구가 오토바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는 5일 오전 4시10분께 영등포구 노들길에서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7%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팔에 골절상을 입는 정도의 가벼운 부상에 그쳤지만, 자숙의 의미로 KBS2 '개그콘서트' 등 출연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했다.

"아내 조씨 거짓증언" 고소

한류스타 류시원이 아내 조모씨를 상대로 위증 혐의로 고소장을 추가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류시원 측은 지난 재판에서 조씨가 거짓으로 증언했다면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조씨에게 폭행, 협박 및 위치 추적을 한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류시원은 맞고소를 했으나 9월 재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결백을 주장하며 항소해 8일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세종대 수시전형 최종합격

걸그룹 레인보우의 오승아가 세종대 수시 전형에 합격했다. 5일 소속사에 따르면 오승아는 지난달 이 대학의 영화예술학과 수시 전형에 지원했으며 최근 합격 통지를 받았다. 2008년 상명대 영화과에 재학했으나 가수 활동으로 학업을 이어가지 못했던 그는 "연기를 더 깊이 배우고 싶어 다시 지원했다."

5년 동거 아내와 지각 결혼

배우 정민이 5년간 함께 산 아내와 9일 서울 청담동 메니비서리 웨딩홀에서 늦깎이 결혼식을 올린다. 신부는 세 살 연하의 서른세 살 항공사 승무원으로 두 사람은 2008년부터 함께 살아왔으며 15개월 된 아들을 두고 있다. 정민은 "어머니가 2008년 자궁암으로 투병하다가 8월에 돌아가셨다. 그전에 며느리를 꼭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발의 품격' 높이는 고어텍스 신사화 고어코리아는 5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고어텍스 신사화의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금강제화의 남성화 브랜드 리갈을 통해 출시된 고어텍스 신사화는 방수와 투습 기능을 갖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물은 철저히 차단하고, 내부에서 발생하는 습기는 빠르게 배출해 쾌적한 발 상태를 유지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고어코리아 제공

르네상스서울호텔서 '무제한 이브닝'

라운지바 클럽 호라이즌

르네상스 서울 호텔은 스카이라운지바 클럽 호라이즌이 실속 있는 가격으로 무제한 맥주 또는 와인을 다양한 스낵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무제한 주류&스낵 이브닝'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이지듬어 만삼하연 클럽 호라이즌은 완연한 가을을 맞아 연인이나 친구, 동료와 함께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여유로운 저녁 시간을 만끽할 수 있도록 8종류의 푸짐한 안주와 엄선한 고급 와인 또는 맥주를 무제한으로 제공한다.

안주 메뉴로는 ▲소시지/볶음 ▲올리브와 토마토 살사를 곁들인 토르티야 칩 ▲멕시코식 케사디야 ▲훈제 연어 카나페 ▲새우 튀김 등이 있으며 무제한 와인을 선택할 경우에는 ▲시도네이 ▲까베르네 소비뇽 ▲멜롯 ▲쉬라즈 ▲피노누아 등 다양한 품종으로 만든 와인을 즐길 수 있다. 문의 02)2222-8639 /황재용기자

던킨도너츠 '2014 다이어리' 2000원 행사

던킨도너츠는 1만2000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 2014년 던킨 다이어리를 2000원에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2014년 다이어리는 휴대 편의를 위해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이즈로 제작됐다. 다크 브라운 컬러의 부드러운 가죽 느낌의 커버는 고급스러움과 내구성을 더했으며 깔끔한 내지는 스케줄 관리가 편리하도록 디자인됐다. 다이어리와 함께 증정되는 지퍼형 파우치 케이스는 다용도로 활용하기 좋다.

이번 프로모션은 영수증 1건당 1회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 참여 시 해피포인트 적립이 불가능하다. 1일부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별도 구매도 가능하다. 권장 소비자가격은 1만7000원. 문의 www.dunkindonuts.co.kr /세지원기자

유경하 교수 소아혈액종양학회 공로상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유경하(사진)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최근 개최된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제6회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학술공로상'을 수상했다.

유 교수는 현재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학술이사, 대한혈액학회 재무이사,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학술이사,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이사를 역임하면서 지금까지 소아혈액 종양 분야에서 많은 우수 논문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탁월한 학문적 업적과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는 소아 혈액질환과 암에 대한 진료와 연구를 담당하며 이 질환들로 고생하는 환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 1993년 5월에 창립됐다. /황재용기자

공정위 '침대 패밀리' 조사

에이스·시몬스-썰타 3개사 안유수회장 3부자가 운영 부당지원-시장독점 '도마위'

국내 침대 업계 1, 2위인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가 불공정 거래 행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와 가구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에 조사관을 보내 매출과 거래 관련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고 5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두 회사 및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서로 소재나 생산시설 등을 낮은 가격에 공급하거나 임대하는 등 부당한 지원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해서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당하게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았는지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도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는 에이스침대 창업주 안유수 회장의 아들인 안성호, 안정호 사장이 각각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안 회장 역시 2002년 미국 썰타침대와 국내 판권 협약을 맺고 별도의 침대 사업을 펼치는 등 국내 침대 시장의 주요 3개 업체를 안 회장 일가에서 경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안 회장 일가가 표면적으로는 3개 브랜드를 각각 다른 회사처럼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 기업이 사실상 한 개 기업 집단과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공시 자료를 살펴보면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 썰타침대, 섬유업체인 툴섬유, 가구업체인 추억스토리아, 리오벨라 등이 친족관계 등으로 얽힌 특수 관계 기업으로 나타난다.

에이스침대가 지난 한 해 이들 친족 기업에 지급한 매입 및 기타 비용은 173억원 수준이다.

특히 썰타침대의 경우 별도의 생산시설 없이 에이스침대와 동일한 제조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회장이 썰타침대 판권을 인수했을 당시 업계에서는 경쟁업체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썰타침대는 1990년대 국내 대진침대와의 제휴를 통해 대진썰타라는 이름으로 에이스침대와 양강 구도를 형성했던 브랜드다.

이에 대해 에이스침대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조사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문제 삼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2009년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가 담합을 통해 할인 판매를 금지하는 가격표시제를 실시한 것을 적발하고 에이스침대에 42억원, 시몬스침대에 10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한 바 있다. /정영일기자 smile@metroseoul.co.kr

립스틱 대신 와인 짙게 바르는 계절

뷔페부터 디너·파티까지 특급호텔 와인행사 풍성

입맛을 돋우는 미식의 계절 가을에는 낭만적인 와인 한 잔이 제격이다. 품격 있게 와인을 즐길 수 있는 호텔 와인 행사를 소개한다.

먼저 밀레니엄 서울힐튼은 내년 4월까지 오크룸에서 '카베리 와인뷔페'를 선보인다. 와인뷔페에서는 ▲까베르네 쇼비뇽 ▲진판델 ▲샤르도네 등의 와인과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다. 밀레니엄 서울힐튼은 22일 이탈리아 식당 일폰테에서 이탈리아 와인의 거장인 반피사의 북아시아 담당 마케팅 매니저 파올로를 초청해 '반피 와인메이커스 디너'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은 11월과 15일 양일간 페스타 비스트로 앤 바에서 와인메이커스 디너를 개최한다. 11일에는 미국의 컬트 와인 메이커 조너던 매이를 초청해 텍스트북(Textbook) 와인을 소개하고 15일에는 미국에 있는 스페인 와이너리 무가와 함께 화이트 와인 무가 블랑코, 레드 와인 프라도 에네아 등을 맛볼 수 있다.

롯데호텔서울은 21일 이탈리안 레스토랑 페닌슐라에서 보졸레누보 출시를 기념해 세미 뷔페와 함께 보졸레누보 와인을 무제한으로 맛볼 수 있는 '2013 에스프리누보 (L'esprit Nouveau) 와인 파티'를 개최한다. 프랑스 부르고뉴주의 보졸레 지방에서는 매해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햇와인을 출시하는데 이에 페닌슐라에서도 같은 날 에스프리누보 와인 파티를 열고 있다. 1년에 단 한번밖에 맛볼 수 없다는 희소성으로 색다른 재미와 맛을 느낄 수 있다. /황재용기자

빼빼로데이는 '더 얹어주는 데이'

11일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관련 판촉행사가 한창이다.

아웃도어 브랜드 오프로드는 티셔츠 구매 시 하나를 더 얹어주는 '1+1' 증정 행사를 연다.

14일까지 체온 하락을 막아주는 발열 티셔츠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같은 제품을 한 장 더 준다. 남녀용 두 가지 모델에 해당하며, 가격은 3만9000원.

롯데마트는 7~11일 '빼빼로데이 상품기획전'을 진행한다. 대용량 상품은 낱개 제품보다 1.5배가량 늘렸다. 빼빼로 13개를 담은 '롯데 빼빼로 사랑해 기획팩'은 서 처인 20개들이 '롯데 빼빼로 기프트 상자'는 1만4600원에 판다. /세지원기자 jsw@

'차이나 스모그' 노출 피부엔 보습세안

자극없이 케어해주는 워터타입 화장품들 '주목'

지난주 시작된 중국발 스모그의 공습이 계속되면서 피부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중국에서 날아온 오염된 공기는 중금속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피부 속 모공을 막는 주범이다. 이에 따라 피부를 깨끗하게 케어해주는 워터 타입이나 저항력을 키워주는 화장품이 주목을 받고 있다.

리리코스는 지난달 28일부터 4일까지 '마린 트리플 트리트먼트'의 백화점 매출이 전주 대비 61%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리리코스 롯데백화점 본점 유원경 매니저는 "스모그가 황사보다 피부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미세먼지 제거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마린 콤플렉스 90.93%가 농축된 리리코스 마린 트리플 트리트먼트는 외부 환경에 스트레스받고 지친 피부에 재생력을 키워주고, 미세먼지는 물론 각질까지 케어해 생기 있는 피부로 가꿔주는 것이 특징이다.

미세먼지로 뒤범벅이 된 피부에는 무엇보다 꼼꼼한 클렌징이 중요하다. 하지만 스크럽제 등을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가 민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러우면서도 섬세한 세안을 해야 한다.

베리떼 '딥클렌징 워터'는 자극 없이 깨끗한 세안을 돕고 풍부한 보습감까지 전한다. 화장솜을 충분히 적신 후 피부결을 따라 부드럽게 쓸어내듯 메이크업 및 노폐물을 닦아내주면 된다. 유기농 캐모마일이 함유돼 있어 진정 효과가 뛰어나고 포인트 메이크업까지 말끔히 지워준다.

외부 유해 환경은 눈가를 더욱 건조하게 만든다. 프리메라 '스콜라트리 인티우시먼트 아이크림'은 피와나무 씨앗 성분이 활성화 에너지를 전달, 활성산소로부터 피부 손상을 예방하고 건조해지기 쉬운 눈가 피부를 매끄럽고 화사하게 가꿔준다.

/박지원기자 @metroseoul.co.kr

엄마아빠, 미세먼지 잡아줘~

첨단 청소·가습·살균기로 자녀 학습·건강 챙기세요

중국발 스모그로 유해물질이 유입되면서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생활 속 미세먼지는 성장기 아이들의 뇌 발달에까지 악영향을 미쳐 집중력 저하, 학습 장애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 학원과 같은 실내에서 장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은 성인보다 미세먼지에 더 많이 노출된다.

실제로 최근 한 방송사의 미세먼지 다큐멘터리 실험에 따르면 도로변에 인접한 교실이 그렇지 않은 교실에 비해 미세먼지의 농도가 2배 이상 높았다.

미세먼지가 위험한 이유는 크기에 있다. 먼지 입자의 크기가 작으면 기관지 점막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몸속으로 침투, 천식, 폐렴과 같은 호흡기 질환뿐 아니라 심각한 질병까지 유발할 수 있다.

또 뇌까지 침투한 초미세먼지는 뇌의 인지 기능을 저하시킨다. 미세먼지에 포함된 납(Pb)은 체내에는 근육을 약화시키고 학습 능력과 집중력을 저하시키는 주된 원인이다.

따라서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실내 미세먼지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이 '청소'다. 그런데 청소는 자주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세먼지 청소기로 유명한 일렉트로룩스의 '울트라원 미니'는 완벽한 4단계 여과 시스템으로 미세먼지를 0.00%까지 완벽하게 걸러준다. 본체·튜브·호스와 같은 연결 부위까지 완벽한 밀폐 시스템을 갖춰 흡입한 먼지를 다시 방출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공기 중 미세먼지 제거는 물론 제균 기능까지 갖춘 에어워셔도 필수 아이템이다.

자연 가습·공기 청정 기능이 뛰어난 위니아 에어워셔 프라임 슈프림은 위니아 플라스마 시스템을 장착해 플라스마 이온을 발생시켜 공기 중에 떠다니는 각종 세균과 미세먼지를 제거해준다.

아이용 장난감이나 크기가 작은 생활용품과 같이 손으로 일일이 닦아내기 어려운 소품들은 살균수제조기로 간편하게 세척할 수 있다. 한경희생활과학의 살균수제조기 '미로클리즈'는 미세한 물 신소재 입자로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살균해주는 친환경 가정 살균 기기다. 아이 물건이나 도마·식기 같은 주방 도구 세척에도 유용하다.

/박지원기자

반룰, 소설가와 콜라보 '윈터스토리북' 출시 반룰은 5일 서울 가로수길 반룰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소설가들과 콜라보레이션한 '윈터스토리 북'의 출시를 기념했다. '윈터스토리 북'은 3인의 소설가 김종휘, 서원경, 강봉준이 겨울과 다운재킷을 공식 소재로 쓴 단편소설이다. /게릴로직 제공

뉴스&뉴스

블랙야크 수능생 할인행사

● 블랙야크는 7일부터 17일까지 다양한 수능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수험생을 대상으로 B 블리자드다운재킷(정상가 48만원)을 29만8000원에, B마이스버그재킷(정상가 56만8000원)을 35만7000원에 각각 판매한다. 제품 구입 시 수험표를 지참하면 영화 예매권을 증정한다.

탐스 '노숙인 돕는' 신발 출시

● 탐스가 노숙인의 자립을 돕는 빅이슈 매거진과 협업한 신발인 '더 빅이슈 브라스'를 선보였다.

발목까지 올라오는 디자인에 안감은 플리스, 외부 소재는 스웨이드와 울을 사용해 보온성과 포근함을 강조했다. 남성, 여성용 각각 300켤레씩 한정 수량으로 판매하며 수익금은 전액 빅이슈 코리아에 기부한다. 가격은 9만9000원.

칙칙하던 BB크림 화사해졌네

CNP·닥터지 신제품 전화

최근 CC크림 열풍 속에서 기능이 업그레이드된 신상 BB크림이 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BB크림 특유의 다크닝 현상을 개선하고 피부톤을 한층 밝고 화사하게 밝혀주는 제품들이다.

CNP 차앤박화장품의 'CNP 을데이 톤 업 비비크림'은 잡티 커버에 스킨케어 기능까지 겸비한 똑똑한 아이템이다. 바른 뒤 피부톤이 칙칙해지는 현상을 개선하고 비타민이 풍부한 체리 콤플렉스와 화이트닝 성분을 함유해 자연스럽게 빛나는 피부를 연출한다. 피지를 흡착해주는 다공성 파우더도 들어있어 보송보송한 피부 컨디션을 오래 유지시켜준다.

고운세상 코스메틱의 닥터지는 피부 고민별 솔루션을 강화한 '닥터지 오리진 플러스 비비' 5종을 선보였다.

물 대신 파타고니아 빙하수 지역에서 자생하는 빙꽃알수의 리페어 워터를 함유해 피부에 자극이 적다. 신뢰 방지 파우더가 잡티와 다크닝 현상을 막아 하루 종일 피부톤을 밝고 화사하게 만들어준다.

/박지원기자

"추, 연봉 2배 150억 줄게 가지마오"

신시내티 '퀄리파잉 오퍼' 카드 꺼내 "추신수 제안 거부 확실"

'추추 트레인' 추신수(31·사진)가 소속팀 신시내티 레즈로부터 '퀄리파잉 오퍼'를 받으며 특급 FA(자유계약선수)의 명성을 입증했다.

5일 MLB닷컴에 따르면 신시내티는 추신수에게 퀄리파잉 오퍼 카드를 꺼내면서 올해 125명 평균 연봉인 1410만 달러(약 150억원)를 제시했다. 현재 연봉의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퀄리파잉 오퍼는 메이저리그 상위 125명의 평균 연봉으로 1년 재계약을 제시하는 것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추신수는 1주일 이내에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거부하면 FA 자격으로 다른 구단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

추신수는 퀄리파잉 오퍼를 거부하고 FA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신시내티 지역 최대 언론인 신시내티 인콰이어러 역시 "추신수가 퀄리파잉 오퍼를 거부할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보도했다.

추신수의 몸값이 6년간 1억 달러(약 1062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추신수가 신시내티의 제안을 받아들일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시내티가 추신수에게 퀄리파잉 오퍼를 제시한 이유는 '추추 트레인'을 붙잡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다른 FA 대상자인 브론슨 아로요, 닉 마셋 등에게는 퀄리파잉 오퍼를 제시하지 않았다. 퀄리파잉 오퍼를 받은 선수가 다른 구단으로 이적하면, 원소속팀인 신시내티는 2014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받는다. 뉴욕 양키스 등 여러 명문 구단에서 군침을 흘리고 있는 추신수의 위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새 소속팀 휴스턴 꼽아

미국 주요 스포츠 매체들은 추신수의 새 소속팀으로 휴스턴 애스트로스를 점찍고 있다.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SI)는 5일 인터넷판에 올겨 FA 시장에 나올 50명의 순위를 매기며 추신수에게 가장 적합한 팀으로 휴스턴을 지목했다. 2일 CBS 스포츠의 칼럼니스트들도 추신수를 영입할 팀으로 휴스턴을 전망한 바 있다. SI는 추신수의 출루율, 스피드와 파워, 수비 능력, 부지런한 연습 습관은 재건에 나서는 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휴스턴을 꼽은 이유를 밝혔다.

/유선우기자 ysw@metroseoul.co.kr

김연아 '소치 리허설'

내달 크로아티아 대회 출전 "부상 많이 회복"

발목 부상으로 주춤하던 김연아(사진)가 2014 소치 동계올림픽 리허설 무대로 12월 크로아티아 대회를 선택했다.

김연아는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를 통해 다음달 5~8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열리는 '골든 스핀 오브 자그레브'에 출전하겠다는 계획을 5일 밝혔다.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을 선수 생활의 마지막 무대로 정하고 훈련에 매진하던 김연아가 NRW트로피(독일 도르트문트), 우크라이나 오픈(우크라이나 키예프) 등 12월에 열리는 소규모 대회를 놓고 저울질한 끝에 '골든 스핀 오브 자그레브'를 선택했다.

이번 대회에서 김연아는 쇼트프로그램에서 뮤지컬 '리틀 나이트 뮤직' 삽입곡인 '어릿광대를 보내주오'를, 프리스케이팅에서는 탱고 거장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아디오스 노니노'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연아는 올댓스포츠를 통해 "부상에서 많이 회복돼 출전을 검토한 끝에 이 대회를 선택했다"면서 "남은 기간 열심히 준비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 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기자

이광종 축구대표팀 감독 "우승 충분히 가능"

이광종(49·사진) U-22 대표팀 감독의 아시안게임 금메달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사령탑을 맡게 된 이 감독은 1986년 이후 이루지 못한 아시안게임 우승을 이루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 감독은 5일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22세 이하(U-22) 대표팀 감독 취임 기자회견에서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을 어렸을 때부터 지켜봐 왔고 특성을 잘 알고 있다"면서 "조직을 잘 만들면 충분히 우승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기자

"어~ 어~" 날개 꺾인 김영환 창원 LG 김영환이 5일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전자랜드와의 경기에서 전자랜드 선수들의 수비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코트 위로 넘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1분당 2점씩! 김영환 펄펄 날았다

메시는 더블더블 맹활약 소속팀 LG 2연승 이끌어

프로농구 창원 LG가 인천 전자랜드를 꺾고 2연승을 달렸다.

LG는 5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2013~2014 KB국민카드 프로농구 정규리그 경기에서 전자랜드를 80-68로 꺾었다.

지난 경기에서 7연승을 기록하던 서울 SK를 저지한 LG는 이날 승리로 2연승을 달렸다. 순위는 5위(7승4패)를 유지했다. 반면 전자랜드는 2일 SK전에 이어 2연패를 기록하며 6위(5승5패)에 그대로 머물렀다.

이날 경기는 2점차 승부가 이어지던 2쿼터 중반부터 김영환의 득점포가 불을 뿜으면서 LG쪽으로 기울었다.

김영환은 쿼터 마지막 6분간 무려 12점을 몰아넣으며 점수차를 12점차로 순식간에 벌렸다. 쿼터 종료 직전에는 3점 버저비터로 전자랜드를 조용하게 만들었다.

전자랜드는 3쿼터 들어 박성진이 8점을 만들며 분투했지만 이번에는 11점을 넣은 기승호를 막지 못해 점수차는 더 벌어졌다.

프로농구 전적 5일

전자랜드	18	12	18	20	68
LG	16	24	22	18	80

프로배구 전적 5일

러시앤캐시	1	3	대한항공

LG는 이날 김시래(13점)·박래훈(10점)·기승호(14점)·크리스 메시(10점)·김영환(12점)이 나란히 10점대 득점을 올리며 고른 득점력을 과시했다. 메시는 리바운드도 10개를 잡아내 '더블 더블'을 기록했다.

/○○○기자

친환경 '바이오 다이나믹'

조민호의 와인스토리

며칠 전 롯데주류가 롯데백화점 창립 34주년을 기념해 와인 한정판을 내놓았다.

관련 기사를 보니 두 가지가 눈에 띈다. 바로 '당글뤼데(D ANGLUDET)'라는 와인 이름과 '친환경'이다.

샤토 당글뤼데는 보르도 오메독의 명성 자자한 6개 마을 중 하나인 마고에 속한 포도원이다. 당글뤼데는 메독의 그랑크뤼 1~5등급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크뤼 부르주아' 등급으로 오랫동안 명성을 누려온 와인이다.

크뤼 부르주아는 1930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후발 주자 중 품질이 뛰어난 샤토에 부여됐다. 실제로 샤스스플린 등 몇몇 와인은 그랑크뤼 등급 와인에 뒤지지 않는다는 호평도 받고 있다. 그러나 2007년 프랑스 공정거래위원회의 판결에 따라 이 문구를 라벨에 기재하지 못하게 됐다.

이번에 시판되는 당글뤼데도 크뤼 부르주아 표기는 병 라벨에 없다. 그래도 와인 매니아들은 다 알고 있고 요즘처럼 저가와인이 범람하는 시기에 '괜찮은' 와인으로 평가받는다.

이 당글뤼데 와인이 친환경으로 만들었단다. 친환경은 와인 세계에서 "바이오 다이나믹"이라는 용어로 통한다.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환경에서 포도를 재배해 와인을 빚는다는 것이다. 와인의 거장 프랑스 니콜라 졸리가 창안한 이 농법은 시대에 따라 의미도 조금씩 달라졌지만 근본 취지는 인공을 거부하고 자연 그대로의 강인함을 와인에 접목시킨다는 것이다. 초창기에는 분뇨나 식물 등 자연 소재로 만든 퇴비 등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됐으나 결벽증 있는 일부 인사들은 그것조차도 인공이라 하여 거부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친환경 농법으로 만들어진 와인 맛은 어떨까. 일반적으로는 색깔이 선명하고 밝으며 맛도 상큼하다는 평이다. 그러나 소위 '술꾼' 중 일부는 친환경 와인이 입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 약간은 투박한 자연의 맛, 와인에 따라 때로는 강한 비린내 향도 스며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mcho@metroseoul.co.kr

날씨

11/6 水 일출 07 02 일몰 17 29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1.co.kr

서울, 춘천, 대전, 전주, 광주, 제주, 강릉, 울릉도, 대구, 포항, 울산, 부산

바이러스나 세균성 호흡기 질환이 유행할 때는 일반적인 마스크보다는 N95마스크 이상을 착용해야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감기가능지수
천식·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칸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9		
6		7				8		5
		8				2		
3	9		2		4		1	7
	4		1		9		5	
			7		1			
		2		6		5		
	8			9			3	

				2		9		
					5	4	8	6
				6		1		3
1			3	7			4	
		4					9	2
5		6	8					
		3		4	2			8
		8	7		3		6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 보누스
슈퍼스도쿠 마스터 (마틴 에이지 리미티드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533-8877
www.ssaju4.com

군무원시험 준비… 관운 따를까 음식·복지 관련 직종이 더 맞아

학늘꽃곰세다 여자 81년 7월 22일 오전 8시

Q 군무원 시험을 준비 중입니다. 시험에서 좋은 성적이 나와도 면접에서 떨어질 수 있는 시점이라 관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가지 일을 오래 못 하고 직업을 바꿔왔는데 군무원이 제게 맞는 직업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결혼 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데 언제쯤 여유가 생길까요?

A 어느 시험을 치르든지 면접을 보러 갈 때는 둣옷 안에는 흰색, 밖에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가십시오. 생달지를 봐서는 군무원보다는 음식이나 사회복지로 접제하면 관정을 취해보세요. 36세 이후가 되면 쏠쏠 이건이 됩니다. 천성은 순박하고 겸손한 것이 특징인데 지혜가 넘으나 운세에서 수(水)기의 부족으로 사회성이 약하여 자신만의 감정에 치우칩니다. 이는 '해질 무렵의 양'과 같은 형상으로 적적한 기운에 감옥고 숙살지기(肅殺之氣)가 있어 한번 마음이 틀어지면 잘 풀리지 않는 고집으로 이어집니다. 이로써 말년에 외로움이 심할 것이니 지금부터 어느 분야든 기술을 익히고 기술로 일하는 직업을 갖도록 계획을 세우십시오.

남편 술버릇 뒷 일상이 살얼음 상담 통해 억눌린 감정 풀어야

younalsl 남자 57년 8월 19일 유국 자시
여자 70년 1월 12일 늦미 전시

Q 저의 고민은 남편의 술버릇 때문에 술 약속 날에는 항상 많이 불안해서 잠도 편히 못 자는 날이 많습니다. 술 마신 후 본인이 무슨 말과 행동을 했는지도 기억을 못 하는 날이 많습니다. 자는 사람을 깨워서 자꾸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 해결 방법은 없는지 좀 도와주세요.

A 사람에겐 이성과 감정이 서로를 번갈아가며 세상을 살아가는데 평소 억눌린 심정을 술로 푸는 정도라면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습관이 됐다면 고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온순한 것과 음주 습관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는데 남편의 술버릇에 대해 그 원인을 찾아본다면 온순하여 타인의 스트레스까지 본인이 짊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70년생 남편 자리에 지침을 이루는데 스스로 변지 고통을 만들어 자따른다는 설명이 됩니다. 2015년 사고수도 있고 2018년 지나서 건강으로 고생할 수 있으니 의학적으로 문제를 찾기 전에 상식적인 선에서 카운슬링을 받아보십시오. 미리 걱정하기보다는 탈이 나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이세요.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1월 6일 (음 10월 4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작은 약속도 가볍게 넘기지 마라. 60년생 힘을 들이면 웃음이 따라온다. 72년생 내가 어려우면 상대도 어려우니 괴장 마라. 84년생 감언이설에 동요하지 마라.

소: 49년생 멀리서 낙보가 날아든다. 61년생 좋은 배우자는 삼천 오사도 못 줄래리. 73년생 없는 게 많아도 자신감 넘친다. 85년생 좋은 일에 이름이 거론되어 마호~

호랑이: 50년생 술로 인한 말 조심할 것. 62년생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니 박수가 쏟아진다. 74년생 습은 끼로 다담함을 보여줘라. 86년생 기슴 흔드는 이성과의 만남이 있다.

토끼: 51년생 간직하고 싶은 귀중품 얻는다. 63년생 살지뽈 얼굴은 타하라. 75년생 가는 날이 장날인 격이다. 87년생 더 큰 세상을 보고 거취를 결정하라.

용: 52년생 사랑하는 사람 아프게 하지 마라. 64년생 임도 보고 뽕도 따는 격이다. 76년생 재산 불릴 거래가 성사되니 기대하라. 88년생 자랑거리가 웃음을 잇는다.

뱀: 53년생 술에 공략까지 천국이 따로 없다. 65년생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법~ 77년생 어디를 가나 환대를 받는다. 89년생 박수 소리 요란할 때 더욱 겸손할 것.

말: 42년생 자녀와 한 약속은 다시 생각하라. 54년생 값이 화려하면 알맹이가 없다. 66년생 이외의 지나친 투자는 멀리하라. 78년생 주변의 칭찬에 자신감이 넘친다.

양: 43년생 오라는 곳이 많아 바쁘다. 55년생 배우지 죽고에 귀 기울여라. 67년생 밑지는 거래가 행운을 부른다. 79년생 사람이 재산이니 인맥 관리 신경 써라.

원숭이: 44년생 엉뚱한 오해로 실수할 수도. 56년생 자녀에게 작은 경사가 생긴다. 68년생 한번 결정했으면 변수 있어도 밀고 나가라. 80년생 악점 감추면 이롭기 없다.

닭: 45년생 큰소리치면 지를만 늘어난다. 57년생 부과되지 않은 가짐이 되도록 노력할 것. 69년생 비관 피해간다고 문제 해결 안 된다. 81년생 도전 두려워 마라.

개: 46년생 술로 인한 약속 자라. 58년생 자신 있다고 무턱대고 나서면 낭패 본다. 70년생 뭉지서 검담하기 힘든 일은 도움 청하라. 82년생 아무리온 대로 일이 풀린다.

돼지: 47년생 배우자와의 동반 외출이 즐겁다. 59년생 살아 착각할 한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라. 71년생 새로운 일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83년생 버려야 할 것은 빨리 버려라.